


한국융합인문학회 · 한국사회적질학회 · 고려대 한류융복합연구소 2022 연합학술대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 일시 : 2022년 6월 17일 (금), 14:00~19:00
- 장소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316B,  zoom
- 주최 :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사회적질학회, 고려대 한류융복합연구소



한국사회적질학회



고려대학교
한류융복합연구소

포스트코로나 시대 돌봄과 교육

한국융합인문학회 · 한국사회적질학회 · 고려대 한류융복합연구소
2022년 연합학술대회

학술대회 /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 총회



(ID: 813 3373 4883 / PW: 812448)

2022. 6. 17. 14:00
고려대 문과대학 316B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엄재근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감염병 경보를 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행 지역이 넓어질수록, 또 확산 속도가 빨라질수록 단계가 높아집니다. 이 중 4단계는 ‘에피데믹’이고, 가장 높은 6단계는 ‘팬데믹’입니다. 에피데믹은 전염병의 피해가 특정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단계입니다. 2002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 2014년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에볼라가 에피데믹으로 분류됩니다. 팬데믹은 전염병이 여러 나라나 대륙에 걸쳐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단계를 뜻합니다. WHO는 1968년과 2009년, 홍콩독감과 신종플루에 이어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엔데믹은 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져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말라리아나 Dengue열이 엔데믹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의 대유행 이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이전 시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인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 전반은 코로나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와 의식으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념하기 위하여 코로나 팬데믹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질과 관련된 돌봄과 교육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적질학회와 한국융합인문학회, 고려대 한류융합연구소가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연합학술대회가 큰 기여를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통찰하는 발표와 지성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 학회 학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고 토론되는 것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연합학술대회 준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엄재근

한국융합인문학회·한국사회적질학회·고려대 한류융복합연구소

2022년 연합학술대회

[세부일정]

▶ 일시 : 2022년 6월 17일 (금), 14:00~19:00

▶ 참여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316B,  zoom (ID: 813 3373 4883 / PW: 812448)

제1부 학술대회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14:00-17:30]

• 좌장 : 엄재근 (강서대학교)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재근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 박보영 (한국융합인문학회 회장) • 엄태웅 (고려대 한류융복합연구소 소장)
14:10~14:20	휴 식	
14:20~14:50	주제발표 1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위드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김근면 (강릉원주대학교), 이옥균 (경동대학교) • 토론 : 서경원 (중앙사회서비스원)
14:50~15:20	주제발표 2	팬데믹 시대,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의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박지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연구원) • 토론 : 박범기 (한독교육복지연구원)
15:20~15:50	주제발표 3	코로나19 이후 성인학습자 교육 : 변화와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강미희 (서울디지털대학교) • 토론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15:50~16:20	주제발표 4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복지정책의 조건과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박보영 (극동대학교) • 토론 : 조한상 (청주대학교)
16:20~16:30	휴 식	
16:30~17:00	자유발표	이형기 시에 나타난 멜랑콜리의 특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이재훈 (건양대학교) • 토론 : 김명인 (인하대학교)
17:00~17:3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재근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 박보영 (한국융합인문학회 회장) • 엄태웅 (고려대 한류융복합연구소 소장)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7:30-18:20]

• 진행 : 김근면 (한국융합인문학회 연구윤리위원장 / 강릉원주대학교)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4.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실태점검 사례집 소개
5.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

제3부 기관별 총회 [18:20-19:00]

1. 성원보고
2. 총회 개회선언
3. 의장 인사말
4. 학회활동 보고
5. 안건 심의 및 의결
6. 기타 안건 토의
7. 폐회선언

※ 현장(대면) 참여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2022년 연합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제1부 학술대회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 좌장 : 엄재근 (강서대학교)

□ 주제발표 1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위드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7

▶ 발표 : 김근면 (강릉원주대학교), 이옥균 (경동대학교)

▶ 토론 : 서경원 (중앙사회서비스원)

□ 주제발표 2

팬데믹 시대,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의 주요 이슈 27

▶ 발표 : 박지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연구원)

▶ 토론 : 박범기 (한독교육복지연구원)

□ 주제발표 3

코로나19 이후 성인학습자 교육 : 변화와 발전 47

▶ 발표 : 강미희 (서울디지털대학교)

▶ 토론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 주제발표 4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복지정책의 조건과 전망 55

▶ 발표 : 박보영 (극동대학교)

▶ 토론 : 조한상 (청주대학교)

□ 자유발표

이형기 시에 나타난 멜랑콜리의 특성 연구 61

▶ 발표 : 이재훈 (건양대학교)

▶ 토론 : 김명인 (인하대학교)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 진행 : 김근면 (한국융합인문학회 연구윤리위원장 / 강릉원주대학교)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79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83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85
4.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실태점검 사례집 소개	87
5.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	89

제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 [주제발표 1]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위드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김근면 (강릉원주대학교), 이옥균 (경동대학교)
- [주제발표 2] 팬데믹 시대,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의 주요 이슈
- 박지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연구원)
- [주제발표 3] 코로나19 이후 성인학습자 교육 : 변화와 발전
- 강미희 (서울디지털대학교)
- [주제발표 4]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복지정책의 조건과 전망
- 박보영 (극동대학교)
- [자유발표] 이형기 시에 나타난 멜랑콜리의 특성 연구
- 이재훈 (건양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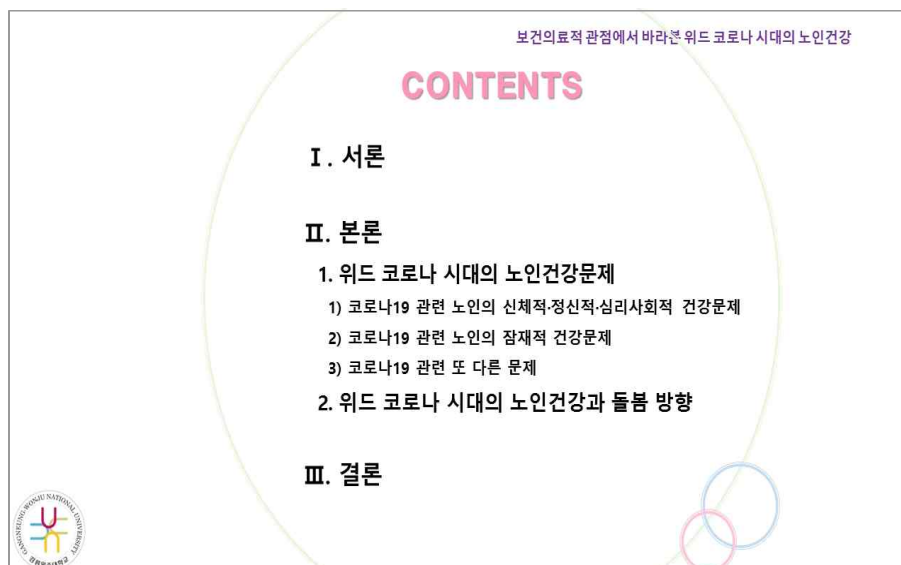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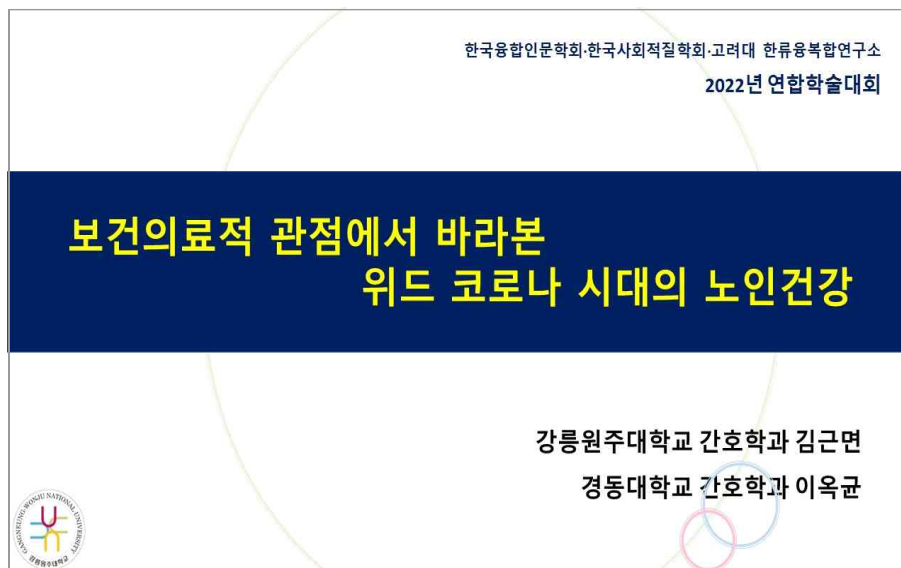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위드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김근면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옥균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I. 서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코로나19 대유행

-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시작하여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됨
-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대유행(pandemic) 선언"

▶ 코로나19의 증상과 특징

⇒ "60세 이상 고령자 & 기저질환자"를 중증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

잠복기 • 약 2~10일의 평균 잠복기 (최대 잠복기 14일)

증상 • 상기도 감염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등), 심한 상기도 폐렴

특징 •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 기저질환자의 치명률 높음
* 기저질환 :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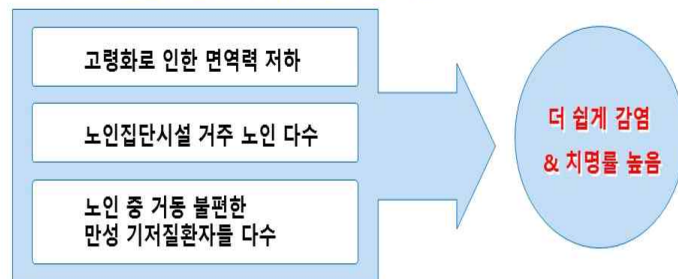


3

I. 서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층의 피해 발생이 큰 이유



▶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 강력한 빠른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위해 다양한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시행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조기 검진, 방역소독,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 비대면서비스, 원격의료 등
- 고위험군이 모인 노인 집단돌봄체제인 **요양병원과 노인생활시설 등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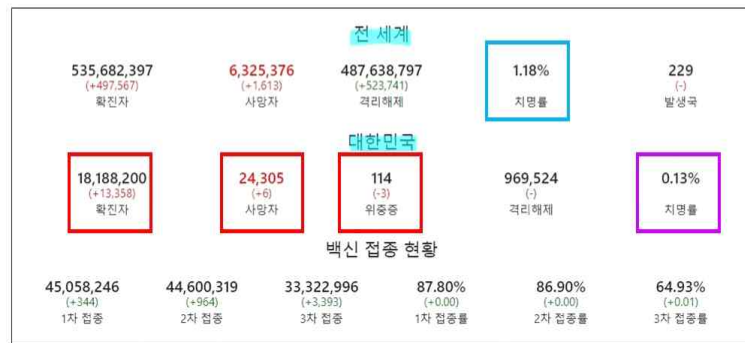
4

I. 서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결과

- 치명률 0.13% :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낮은 수치
- 모든 연령층에서, 우리 생활의 전반에 걸친 많은 변화 초래
- ⇒ 특히, 노인 및 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위협, 빈곤, 사회적 고립, 디지털 배제 등의 다양한 위기에 노출 → 각별한 관심 요구



<출처 :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자료검색일 2022.06.08.) <https://coronaboard.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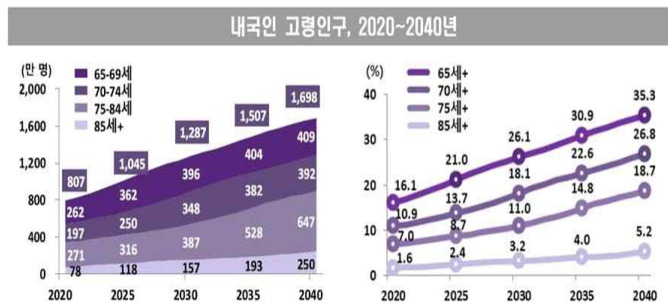
5

I. 서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과 더불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목전에 둠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2022.04.14.)>



▶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적 문제 대두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악화 위험
- 초고령 사회에서 가족의 돌봄부담 증가,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예측되고 있음

6

I. 서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위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노인건강과 돌봄” 관련 선행연구 “주제별 분류”

(2019년 12월말~2022년 5월말)



I. 서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위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
노인 건강 및 돌봄문제의 해결을 위한 향후 대처전략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 있음
- 이에, 본 주제발표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노인건강과 돌봄 방향에 대해 보건의료적 관점으로 논해보고자 함



II. 본 론 : 1.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문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1.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문제

▶ 코로나19의 영향

-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대책 지침 변경
 - : 2020. 6.~ 고위험 연령기준 65세 이상 →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사망률 감소 위한 엄격한 사회적 격리 권고
 -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은 만성 질환과 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 & 예방접종 실시
 -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천
 - ⇒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집단 코로나19 감염 사례 빈번히 발생
- 코로나19 치료자, 격리경험자, 확진자와 그 가족 등에 직접적인 영향
-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언론의 잦은 코로나19 정보 전달 ⇒ 짜증, 불안, 우울 가중



II. 본 론 : 1.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문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노인에서 코로나19의 영향 ⇒ 노쇠와 관련되어 악영향 더 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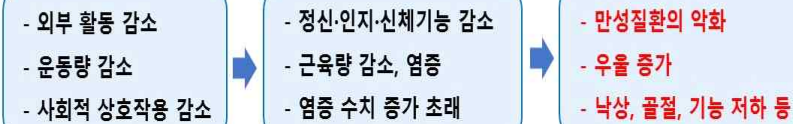
- 최근 노인의학에서 65세 이상 노령층의 “노쇠증후군(frailty)” 진단에 대한 보고

체중감소, 피로감, 기력의 감소, 보행속도의 저하, 신체 활동량의 감소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면...

“노쇠증후군(frailty)”으로 진단

※ 이 외에도 식욕저하, 음식섭취량 감소, 근육량 감소 등이 ‘노쇠’를 판단하는 증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이 고령 노인에게 미친 영향 ⇒ 전반적인 노인건강화



II. 본 론 : 1.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문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1) 코로나19 관련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심리사회적 건강문제

(1) 코로나19와 신체적 건강

-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활용 '만성질환과 건강행태의 변화' 코로나19 유행 전/후 비교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국인의 우울감, 스트레스, 당뇨병이 지속적으로 악화**
- 노인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전에 비해 유행 후 70세 이상의 남성 노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증가, 60~69세 여성노인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유의하게 상승
 - ⇒ 고콜레스테롤혈증 : 심뇌혈관질환과 치매에 대한 위험인자
 - 고위험 음주 : 간질환, 정신질환 치매의 위험인자
- 따라서, 노인의 콜레스테롤혈증과 고위험 음주에 대한 예방접근을 위한 적절한 증재 필요**



II. 본 론 : 1.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문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1) 코로나19 관련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심리사회적 건강문제

(2) 코로나19와 정신건강

- '코로나 블루' 같은 신조어 탄생
(*코로나 블루 : 코로나19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함)
- 국내 코로나19 유행 전/후 '정신건강실태조사' 전반적인 비교 결과
 - 코로나19 유행 전 우울 고위험군이 3.8%였던 것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유행 9개월 시점에서 유의한 수준의 우울은 22.1%, 불안은 18.9% 증가**
 - 격리자들의 우울 증상은 격리되지 않은 군보다 2배 높았고, 우울 증상도 코로나 발생 전보다 증가
- 박혜윤(2021) "코로나19 감염 이전의 개인적인 환자 특성, 코로나19 감염증과 치료가 중추신경계 및 신체에 주는 영향, 사회적 고립, 낙인과 실직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겪게 되는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등의 총체적인 결과로 코로나19 환자에서 정신건강문제가 나타난다"
-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바탕, 코로나19 상황에서 64세 이하 인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방역수칙 실천과 심리적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한명희,2021)
 -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방역수칙의 실천정도가 19-64세 인구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코로나19에 의해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보고함**
- 생애주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이레 외, 2022)
 - ⇒ **코로나19 이후 노인의 우울 증가됨을 보고함**



II. 본 론 : 1.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문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1) 코로나19 관련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심리사회적 건강문제

(3) 코로나19 관련 전반적인 영향

- 노인일자리 등의 경제적 활동 위축, 종교활동 제한, 경로당 및 복지관 휴관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 및 여가 활동의 감소** → 노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우울 증가**
- 집단생활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코호트 격리 & 면회금지 등 방역 조치로 가족과 접촉 제한** → **외로움, 우울 발생 가능성 더욱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복지 서비스의 공백 초래
 - 취약계층(고령환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식이섭취·영양공급 저하 및 신체활동 감소
 - **취약계층의 만성 기저질환 상태 악화, 약물섭취와 치료순응도 저하**로 신체·정신·사회적인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줌



II. 본 론 : 1.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문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2) 코로나19 관련 노인의 잠재적 건강문제

(1) 코로나19의 후유증 “롱코비드(Long Covid)”

- 최근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높지 않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보건당국의 판단
 - **전 국민의 1/3 이상 코로나19 확진 경험**
-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한 사람들 중 약 10~30%에서 **코로나19 후유증 호소**
- **롱코비드(Long Covid)** : 코로나19의 회복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코로나19 회복은 12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된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기간을 넘어 몇 주~몇 달에 걸쳐 코로나19 증상이 지속되는 것**
- 롱코비드(Long Covid)의 특징 : 아직 역학기전 미검증됨
 - 주요증상 : **피로, 숨가쁨, 호흡곤란, 인지장애(기억력,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지속적인 기침, 가슴 통증, 말하기 문제, 근육통, 후각상실, 미각상실, 우울증, 불안, 발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음



II. 본 론 : 1.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문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2. 코로나19 관련 노인의 잠재적 건강문제

(2) 코로나19와 치매

-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의해 치매환자 숫자가 감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한 환자의 25~45%가 치매환자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
- 아직 롱코비드가 치매와의 관련성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폐렴환자에서 치매발생률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어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롱코비드 환자의 경우
 코로나19가 치매의 자극요인이 될 수 있음이 예측됨



II. 본 론 : 1.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문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2) 코로나19 관련 노인의 잠재적 건강문제

(3) 심리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

- **코로나19**는 연령과 성별,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치명적인 감염률을 보이지만,
 그 감염의 영향과 여파는 연령과 성별, 거주지와 지역,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다.
 특히, 노인은 코로나19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권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마치 '노인들의 문제' 처럼 여겨져 노인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와 연령차별, 격리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심지어는 혐오표현(Boomer Remover) 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김선순·조산새, 2020).

<출처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기획연재 : 코로나19 노인 보호를 위한 한국의 대응. >



II. 본 론 : 1. 위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문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위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3) 코로나19 관련 또다른 문제

(1) 노인 돌봄문제 : '긴 병에 효자없다'

-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 노인돌봄 필요 기간 증가
- "노인돌봄은 노쇠와 관련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부양하기 힘들고, 언제 끝이 날 것인지 알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노인돌봄이 노년기 간병과 같은 질병 돌봄이 된다" (최성민, 2022)
- 장기화되고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돌봄부담이 "간병살인" 등의 또 다른 사회적 문제 초래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양한 노인학대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 제기(권금주, 2020)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발표(2021. 6.)
 -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대비 '노인학대 신고건수' 5.6% 증가, 이 중 '학대 판정건수' 전년대비 19.4% 증가
 - 학대유형 : 정서적 학대(42.7%), 신체적학대(40.0%), 경제학대 4.4% 순
 - 발생장소 : 가정(88.0%), 생활시설(8.3%)
 - 학대 행위자 : 아들 34.2%, 배우자 31.7%
 - 가구형태 : 자녀동거가구 32.9%, 노인부부가구 32%

"가정 내 노인학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목표인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AIP)" 실현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예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II. 본 론 : 1. 위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문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위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3) 코로나19 관련 또다른 문제

(2) 노인 돌봄문제 : 돌봄 관련 제도적 문제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2017년 9월 이후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으로 "돌봄의 사회화" 진행
 - 경증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방문요양(재가)서비스 제공
 -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 → 집단노인시설(요양병원 입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문제점 1 • 방문요양(재가)서비스는 일부 시간만(하루 3~4시간 정도) 서비스 제공 → 남은 돌봄시간은 모두 가족 몫

문제점 2 • 24시간 돌봄 가능한 시설중심 돌봄은 가족의 신체적 돌봄 부담은 덜어주지만, 입원 및 입소와 관련 추가 비용 매월 부담 → 경제적 돌봄부담 가중

문제점 3 • 시설 중심의 노인돌봄 선택 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노인의 비자발적 입원(입소)가 특징임

※ 노인이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가족의 결정에 의한)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노인은... 자신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과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생활방식, 낯선 사람들과의 적응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고독감, 상실감, 괴로움, 소외감, 가족에게 버림받은 느낌 등 경험(전성남, 2014)

⇒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인돌봄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있으면서, 이러한 노인의 심리적인 문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II. 본 론 : 1.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문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3) 코로나19 관련 또다른 문제

(3) 돌봄문제 이슈 : 요양병원 '화학적 억제'

- KBS 2020.9.12. <시사기획 창>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추지 못한 약물'편
 - 전국의 1,400여 요양병원의 항정신병 약물의 처방 실태를 공개하면서, "코로나19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실시된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을 강제로 재우는 '화학적 구속'을 한다"고 고발
 - 대한요양병원협회 반박

"요양병원과 노인생활시설 등에 입소한 노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외출, 외박이 중단되고, 자원봉사자의 지원 중단, 대면 면회도 중단되어, 이로 인한 가족과의 격리, 고립 등으로 인해 불안, 초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우울감, 불면증 등이 증가하였고,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항정신병약을 처방이 증가한 것"
 - 이러한 상황을 노인돌봄 수요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화학적 구속 대한 두려움과 강한 거부감 유발,
지속적인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라도 요양병원 입원을 꺼리게 됨
 - 반면, 치료적 측면의 화학적 구속 외에도 노인 안전돌봄을 위한 신체적 구속 등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노인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II. 본 론 : 2.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돌봄 방향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노인이 원하는 돌봄은 무엇일까?

(1) 2020년 노인건강실태조사: "생활환경" 분석결과 (2020. 6. 보건복지부 발표)

- 노인의 83.8%가 건강할 때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길 원함
 - ⇒ 이 중 56.5% : 거동 불편해도 재가서비스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
 - 31.3% :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이용 희망



노인의 돌봄 요구에는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Aging in Place; AIP)"의 요구(needs)가 있음을 시사함



II. 본 론 : 2.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돌봄 방향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노인이 원하는 돌봄은 무엇일까?

(2) 노인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의사에 대한 영양요인 연구 : 경기도 거주 노인대상 (김재희·김희연, 2020)

• 노인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사는 '방문요양 이용의사' 가장 높았음
: 방문요양 54.4%, 방문간호 52.8%, 방문목욕 44.4% 등의 순 →

(3) 노인돌봄서비스 요구조사 (김가원 · 최성현, 2021)

• 안전 지원 요구	기존의 안부확인 서비스 외 가족상담, 간병, 돌봄서비스 가정방문 횡수증가 등
• 사회 참여 요구	야외활동, 문화활동, 노래교실, 자원봉사와 자조모임 공간 등
• 생활 교육 요구	인터넷 교육, 신체건강 분야(건강상담, 운동프로그램, 당뇨병 관리 등)
• 인지건강 요구	치매예방체조 등
• 정신건강 요구	우울증 상담 및 치료, 자살예방프로그램 등
• 일상생활 지원 요구	이동지원, 가사 관련 욕구(청소와 세탁지원, 식사지원 등)
• 자원 연계 요구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지원 요구(가전제품·냉난방용품·냉난방비 지원, 식품·생필품 지원 등), 주거환경과 관련 요구(미끄럼 방지용품, 단열 및 해충관리), 안전장치설치 요구(가스타imer 등), 건강관련 물품 지원요구(보행 보조기, 지팡이, 요양 관련 복지용품, 건강 및 의료관련 기기 지원)
• 기타 요구	의료검진과 관련된 건강검진, 혈압관리, 치매검사, 치과진료, 당뇨검사, 대상포진 예방주사, 병원비 지원 등의 요구 등

21

II. 본 론 : 2.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돌봄 방향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노인돌봄 가족의 요구는?

- 노인돌봄 부담을 해결을 위한 가족에 대한 국내 요구도 조사는 아직 미흡한 실정 (임정기·노혜진, 2020)
 - 노인돌봄 가족에 초점을 둔 연구는 노인돌봄 가족의 규모와 대단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술연구를 통한 실태조사만 일부 이루어졌음
 - 돌봄을 제공받는 노인의 96%가 가족과 지인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음
→ **노인돌봄 가족들의 심리·정서적 돌봄부담**
 - **돌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돌봄제공자의 연령과 성별, 돌봄기간, 돌봄대상자의 특성, 돌봄이 제공되는 맥락, 사회적 지지와 자원
 - 노인돌봄 가족에 대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요구
 - 노인돌봄 가족들은 신체·심리·정서적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비공식적인 가정 내 돌봄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원함
- ⇒ 이는 일부 연구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추후 노인돌봄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가족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대단위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돌봄 가족들의 요구도 조사 실시**필요

★ 노인돌봄 가족들의 요구와 노인들의 돌봄요구는 사회제도와 노인돌봄정책 방향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22

II. 본 론 : 2.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돌봄 방향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들 : 주제 분류 (2019.12.~2022.5.)

- ① 노인돌봄 실태조사 실시 ②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③ 건강안전망 강화 ④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⑤ 노인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⑥ 사회안전망 강화 & 노인보건복지전달체계의 재정립
- ⑦ ICT·IoT·비대면 돌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⑧ 지역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추진

정책 제안 방향	정책 제안 주요 내용
1. 노인돌봄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 문제와 요구도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 : 노인 및 노인돌봄 가족 대상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실태조사
2.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공론화 • 가족 돌봄자의 일생활·돌봄에 대한 지원 : 가중돌봄 노동가치에 대한 재정적 보상, 노인단기보호서비스 확대, 노인돌봄 근로자의 가족돌봄 휴가·휴직 확대 • 지역사회 내 가족센터를 통한 노인돌봄 가족지원 : 돌봄가족 자조모임 참여, 돌봄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언, 돌봄계획과 돌봄준비를 위한 컨설팅, 죽음과 사별 등에 대한 교육 및 전문상담 등



23

II. 본 론 : 2.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돌봄 방향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들 : 주제 분류 (2019.12.~2022.5.)

정책 제안 방향	정책 제안 주요 내용
3. 건강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 노인을 비롯한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개입, 고령층 대상 맞춤 서비스 고려 • 일상생활회복을 위한 건강 불평등 대응 • 환자중심 가치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전환 : 상급종합병원 중심 → 의원 중심) • 후기 노인을 포함한 기능제한자,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개별 이동수단 지원, 방문진료 또는 약국병원방문 대행 서비스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비대면 진료 허용 • 미래 감염병 X에 대응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보건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과 이용자에게 대한 보건관련 기준강화 - 돌봄서비스의 긴급 지침과 매뉴얼 준수에 대한 관리/점검 -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인력의 안전을 위한 조치 점검과 지원확대 -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의료복지서비스 신청-제공 단절되지 않도록 개별제도 개편 정상화
4.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기관의 서비스·자원배분 기능·역할 강화에 대한 공공성 강화



24

II. 본 론 : 2.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돌봄 방향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들 : 주제 분류 (2019.12.~2022.5.)

정책 제안 방향	정책 제안 주요 내용
5. 노인돌봄중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제공 인력에 대한 지원(충분한 돌봄인력 충원, 돌봄대체인력 지원, 적절한 임금보상)
6. 사회안전망 강화 & 노인 보건복지전달체계의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에도 지속되는 노인돌봄서비스 • 노인 취약계층의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 확대, 방역 물품 지원 등 •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7. ICT·IoT·비대면 돌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춘 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 ICT 기술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 재활·돌봄 로봇 등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도입 강화 - 능어촌 지역활성화를 위한 빈집활용에 ICT 기술 활용 - ICT 복지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 AI기술 활용프로그램 운영(치매예방/신체운동 프로그램 등) - 노인돌봄 중사자의 대상자 정보관리, 상담 및 모니터링 등 - 노인 건강문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적용
8. 지역 맞춤형 커뮤니티 케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생활시설을 중심의 노인돌봄 체계 재정립/재정비 • 탈시설화 및 커뮤니티 케어 체계의 적극적인 추진 •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기(AIP)를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참여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천 촉구

25

III. 결 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건의료시스템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실시로 문제 파악 후 대안 강화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인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정책을 제공하였으나, 주로 노인보호를 위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조치로 의료적·경제적 지원 등이 주류를 이루었음

▶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위기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돌봄 수요자(노인 & 그 가족)의 요구에 따라 대처하는 방안으로 정책적 지원 고려

▶ 코로나19 관련 노인돌봄문제는 수요자인 노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위기상황인 만큼

탁상공론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이고 빠른 사회·제도적인 노인돌봄 지원방안 실현 필요함

▶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의 변화의 특징을 정책에 반영 (여나금, 이재은, 2022)

: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집에서 모든 걸 해결(Localism),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Health and SaftyFirst), 언택트·온택트로 인한 디지털의 일상화(DigitalTransformation), 일상의 회복을 위한 공공역량 강화요구 (Great Government),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갈망(Sustainability)

26

Ⅲ. 결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 발표 (2020.11.27.)
 - ⇒ [3대 추진전략 / 10대 추진과제]
 - ① [첫 번째 추진전략] 코로나 공존시대의 돌봄체계 정비
 - [추진과제]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 대응, 감염·격리 시 상황별 대응체계 구축,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선제적 대응,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화
 - ② [두 번째 추진전략] 재가 돌봄 & 비대면 서비스 다양화
 - [추진과제] 아동의 경우 서비스확대 및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 해소, 노인의 경우 비대면 돌봄 및 건강관리 강화, 장애인의 경우 가정 내 고립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강화
 - ③ [세 번째 추진전략] 가정돌봄 지원 및 아동 모니터링 강화 방안
 - [추진과제] 가족돌봄 지원 확대, 가정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양육자 정서지원 강화
- ▶ 코로나19 관련 후유증인 ‘롱코비드’에 대한 상세한 역학조사 & 롱코비드가 노인돌봄에 미치는 영향 파악
 - ⇒ 노인건강과 돌봄체계를 정비하여 또다른 팬데믹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

27

Ⅲ. 결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워드 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

- ▶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적 노인돌봄”을 위해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목표이며 노인들도 바라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기(aging in place)”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빠른 도입과 정착이 필요함
- ▶ 중증 노인환자 돌봄을 위한 의료적인 지원체계 재정비
- ▶ 노인돌봄 인력부족의 대안인 인공지능 로봇과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노인돌봄 분야의 정보통신기술(ICT)의 개발과 적용 필요
- ※ 노인돌봄에 관한 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할 때는 노인돌봄인력의 의견과 함께 노인돌봄수요자인 노인과 그 가족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28



[토론문]

「위드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에 대한 토론

서경원

(중앙사회서비스원 과장)

1. 노년기(老年期) 돌봄과 보살핌

생애(生涯)는 한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평생(平生)의 기간으로 한 생애 동안 사람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 생활과 가족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생애주기는 사람의 삶을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단계로 구분한 과정이며 발달단계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된다.

노인(老人)은 노년기에 속하는 사람을 뜻하며 이 시기는 신체적·인지적 성장의 정점을 찍고 쇠퇴하는 노화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에릭슨은 이시기를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의 시기로 정의하고 지나온 삶에 대해 긍정적, 낙관적인 인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경우 죽음에 맞설 용기를 얻기도 하며 반대로 자신의 실패나 실망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절망에 이르게 된다.

사람은 태어나 신체적·인지적으로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하며, 이는 노년기 역시 다르지 않다. 단, 영유아기와 노년기의 차이 중 하나는 영유아기의 보살핌이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노년기의 돌봄은 개인이 언제 삶을 마감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다.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83.5

세이다. 노년기 진입 연령을 65세부터라 정의한다면 2020년 기준으로 평균 18.5년 정도의 돌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년기 돌봄과 보살핌이 개인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준다.

2. 감염병과 노년기(老年期) 돌봄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감염병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세계 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대유행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전연령층의 인간에게 생명을 위협하고 후유증을 앓게 하지만 노화하고 있는 노인인구에게는 더욱 더 큰 파괴력을 가진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유행이 컸던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돌봄시설의 감염병 확산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참조해 볼만 하다.¹⁾

- ① 요양시설이 위치한 지역 내 감염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의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발생확률이 높았다.
- ② 요양시설의 입소율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발생확률이 높았다.
- ③ 고령인구에서 나타나는 코로나19 감염증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입소자에 대한 감염의 심이 지연되었다.
- ④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들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고, 사망위험이 높았다.
- ⑤ 요양시설에는 치매환자와 임종관리를 받고 있는 입소자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격리 조치가 어려웠고 전파의 위험이 높았다.
- ⑥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검사자 수 한계로 적시에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소요되었다.
- ⑦ 여러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되지 않고 감염사실이 확인 될 때까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였다.
- ⑧ 종사자 간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사자 감염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 방이나 휴게실, 흡연실, 차 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등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⑨ 전문가의 조언 부족 등으로 인해 감염 예방 조치에 미숙하였고, 그 때문에 순응도가 낮았

1) 서울연구원(2021).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감염 대응실태와 과제**.

다. 또한 지침의 지속적인 변동으로 최신 지침을 따른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 ⑩ 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위원회로부터 직원 운영 지원을 받지 못했고, 설립 당시 요구되던 직원 수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돌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기간 동안 요양시설 외 노인돌봄 지원체계가 가동됐다. 그 운영 현황을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재가시설 모두 큰 공백 없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²⁾

〈 노인돌봄 지원 현황 〉

구분		휴원 여부	휴원 서비스
주 요 시 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 2020년 2월부터 휴관 - 2020년 7월 단계적 개방	- 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재가시설 주야간보호 서비스	- 2020년 2월부터 휴원 권고 - 2020년 5월부터 부분적 개관 - 2020년 8월부터 휴원 권고, 방역지침 준수 하에 운영	- 긴급돌봄
	방문요양	- 복지부 지침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하에 정상 운영	
	맞춤돌봄 서비스	- 비대면 전환(안부 전화) 및 1:1 방문으로 정상 운영	
서비스 추가 지원		- 코로나19 긴급돌봄 서비스	
급여 지원		- 가족요양비 지원	

3. 노년기(老年期) 돌봄의 방향

해외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요양시설 위주의 돌봄에서 더 위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인여가시설이나 재가시설이 큰 공백 없이 운영되었으므로 “위드코로나 시대의 노인건강과 돌봄” 에서 필자(筆者)가 제안한 노인돌봄 제도를 커뮤니티 케어 형태로의 발전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개인의 수명과 보살핌 기간은 개인과 사회에 부담으로 ‘사회학적 상

2) 인천연구원(2021). 팬데믹 시대 돌봄의 변화와 복지정책과제.

상력 을 가지고 사회구성원 전연령층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앞으로 사회를 이끌고 지지기반이 될 연령층은 그들에게 돌봄이 필요한 시기였던 영유아기를 커뮤니티 케어가 아닌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보살핌을 받았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대,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의 주요 이슈

박지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연구원)

한국사회적질학회 · 한국융합인문학회 · 고려대 한류융복합연구소 2022년 연합학술대회
2022. 6. 17 (금)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3168

팬데믹 시대,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의 주요 이슈

박 지 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연구원 / 우송대학교 강사)

목차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 팬데믹과 필수노동
 - 한국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현황과 실태
-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주요 이슈① 코로나19 이전
 -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실태
 - 근골격계 질환과 감정 소진
 - 성희롱 문제
-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주요 이슈② 코로나19 이후
 - 더욱 심화된 불안정한 노동
 - 안전하지 못한 노동
 - 추가업무 및 활동 통제로 인한 과중한 노동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 현황
 - 정책영역 : 중앙정부, 서울시, 지자체
 - 실천영역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본 과제
- 정리

연구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 팬데믹과 필수노동

-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 돌봄의 재가족화 촉발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 돌봄 위기
- 돌봄 위기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 사회적 문제
- 돌봄 영역의 특성
 - 오랜 시간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온 영역
 - 신자유주의 사상 표방 국가의 복지축소정책으로 인해 더욱 외면된 영역

연구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 팬데믹과 필수노동

- 돌봄은 인간의 삶의 필수 요소, 생존과도 직결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도 보호자의 돌봄 필요
 - 노인성 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노년기에도 돌봄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움
 - 심각한 장애나 질병을 가진 이들에게도 타인의 돌봄은 필수적
- 노인돌봄(장기요양)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소라 할 수 있음
 - 한국은 노인돌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음
- 돌봄 영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저조함
 - 돌봄 가치나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부족

연구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 팬데믹과 필수노동

○ 돌봄노동은 고밀접 노동

-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와 밀접 접촉이 불가피함
- 또한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은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는 돌봄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함
- 때문에 감염병이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돌봄노동자들은 노인의 생존과 그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돌봄노동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음

연구목적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위기 속에 돌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돌봄 영역의 필수노동자인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에 주목

- 팬데믹 속에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주요 이슈)는 어떠한가?
- 현재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요양보호사로 한정함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국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현황과 실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5항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장기요양요원 현황 (통계청, 2021)

총계	요양보호사	(방문) 사회복지사	의사 (축타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502,847명	450,970명	30,268명	2,312명	3,504명	13,221명	14명	2,558명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국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현황과 실태

○ 요양보호사 노동 실태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 성별 및 연령대: 여성 94.7%, 50~60대 79.8%

- 근무시간(월): 요양보호사 101.3시간으로 가장 짧음

사회복지사 169.1시간, 간호(조무)사 162.5시간, 물리(작업)치료사 164.4시간

- 월평균 임금: 요양보호사 107.6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

- 고용형태: 정규직 33.6%, 계약직 66.4%

<2021년 서울시 장기요양 실태조사>

- 성별 및 평균연령: 여성 94.5%, 방문요양 61.1세, 시설 60.2세, 주야간보호 55.6세

- 근무시간(월): 평균 19.4일(168.6시간) *시설 요양보호사만 해당

- 월평균 임금: 시설 2,045,436원, 주야간보호 1,815,375원, 방문요양 995,580원 (세금 공제 전)

- 고용형태: 정규직 21.8%, 계약직 78.2%

▶ 특성: 중·고령 여성, 낮은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주요 이슈 ① : 코로나-19 이전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실태

○ 요양보호사 직군의 특성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높은 계약직 비율, 낮은 임금수준, 단시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 부족하고 자유롭지 않은 휴게시간

○ 요양보호사에 대한 호칭과 인식

“아줌마”, “어이~”, “도우미”
“우리 집에 일하러 오는 아줌마”
“남의 집에 가서 밥해 주고 빨래하고
노인들 똥 기저귀 치우는 사람”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주요 이슈 ① : 코로나19 이전 근골격계 질환과 감정소진

○ 근골격계 질환 문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 동작, 무리한 힘 사용,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허리, 어깨, 목, 상·하지 신경 근육과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이용자 등 중량물을 들거나 내리는 작업, 기저귀 교체 및 체위 변경, 휠체어 등 기구를 활용하여 밀거나 당기는 이동, 식사 보조, 치매 등 증상관리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반복적인 동작, 과도한 힘 사용, 직무 스트레스 경험
- 요양보호사 중 근골격계 질환 호소 비율 : 98.1% (이상윤, 2012)
- 근골격계 질환의 만성화 가능성 높음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주요 이슈 ① : 코로나19 이전 근골격계 질환과 감정소진

○ 근골격계 질환 문제

- 산재 인정받기 어려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판단되는 견해가 많음
- 최다솜(2019) 연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인구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53.9%와 비교하여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98%라는 점을 고려한다
연령 요인보다는 업무적 특성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 의무화, 보조기구 설치 의무화 등과
같이 돌봄현장의 산업재해예방 지원 필요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주요 이슈 ① : 코로나19 이전 근골격계 질환과 감정소진

○ 감정소진 문제

-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무시, 모멸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인내하는 등 감정 소진이 발생하는 업무 수행
- 강희태(2012)의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측정 결과,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약 58%, 고위험군이 약 38%로 나타나 심각성이 높음을 보고
- 최근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8.10.18. 시행) 작동
장기요양 돌봄노동자도 감정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 예방을 비롯하여
감정소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주요 이슈 ① : 코로나19 이전 성희롱 문제

○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피해 문제

- 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짐. 이에 따라 성희롱이나 부당대우, 과도한 감정노동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동성의 요양보호사와 이용자 매칭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여성 요양보호사가 압도적으로 많음)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 이용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9.1%
-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25.2%,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다 16.0%

〈2020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 42.4%
- 가해자의 85.6%가 서비스 이용자
- 성희롱 피해 발생 시 대다수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음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주요 이슈 ② :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불안정한 노동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20)

-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 경험 20.8%
- 중단 기간이 한 달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44.5%
- 무급대기 조치 및 별도의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지급 없이 노동 중단

○ 코로나19와 여성노동 정책과제 I : 대면대인서비스 현장 분석(국미애, 김소연, 2021)

- 요양보호사의 31.7%가 코로나-19로 인한 일거리 감소 및 일 중단 경험
-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노동시간 줄고, 소득 감소함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서비스 이용자나 가족이 갑작스럽게 방문 중단 요청
- 일자리 중단을 우려하여 이용자로부터 부당업무 요구 받아도 거절 못하는 경우도 발견

▶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불안정성 높아짐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주요 이슈 ② : 코로나19 이후 안전하지 못한 노동

- 방역물품 지원 부족
 - 방역물품 지급의 불충분성, 일회성
 - 돌봄노동자 스스로 방역물품을 구입하거나 준비
- 고밀착 노동으로 인한 감염 위험
 - 목욕이나 식사 보조 등 이용자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
 - 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
- 감염에 대한 이해 부족
 - 마스크를 벗고 일하라는 요구를 받거나(33.7%) 이용자나 가족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돌봄노동자에게만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21.6%)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주요 이슈 ② : 코로나19 이후 안전하지 못한 노동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20)
 - 코로나-19 이후 감염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있다 55.2%
 - 일자리 중단과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을 표시한 비율 57.5%
- ▶ 장기요양 돌봄노동자들은 감염 위험 속에서도 일자리가 중단될 경우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진퇴양난 속에서 안전을 포기하고,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쪽을 선택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주요 이슈 ② : 코로나19 이후
추가업무 및 활동 통제로 인한 과중한 노동

○ 추가 업무로 인한 과중한 노동 (조승규, 2021)

- 코로나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이용자 산책이나 면회 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신체활동 지원이나 정서 지원 등의 업무강도가 더욱 높아짐
- 요양시설 내 외부인 출입 금지로 외부 강사에 의한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어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 진행 업무 담당. 프로그램 구상과 준비에 따른 추가업무 발생
- 시설 내 방역업무 추가. 관내 소독을 비롯하여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지도/관리 과정에서 어르신과의 갈등 경험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주요 이슈 ② : 코로나19 이후
추가업무 및 활동 통제로 인한 과중한 노동

○ 활동 통제로 인한 인권침해

- 방역지침이나 기관 자체의 방침에 따라 주기적·필수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수행
 - 동선 보고 요구
 - 이용자로부터 감염을 우려하여 개인적인 외출이나 모임을 하지 말라는 요구(42.8%)
 다른 집에는 가지 말고 우리 집에만 오라는 요구(38.0%)
- ▶ 코로나-19로 추가된 업무에 따른 노동강도와 활동 통제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매우 심각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 현황 정책영역

○ 중앙정부

- 2020년 10월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발표
- 2020년 1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 *필수업무 범위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등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내용 : 방문돌봄종사자에 한시적 생계지원, 시설에 방역관리자 배치, 교대인력 추가 확보 등
- 2021년 5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1월 시행)
 - *제1조 :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 현황 정책영역

○ 서울시

- 2020년 12월 「서울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 *필수업종으로 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수, 환경미화, 택배·배달 등을 제시
 - *필수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필수노동지원팀을 전담부서로 신설,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 확대
- 2021년 1월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제1조 : 재난 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여 필수노동자가 존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전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
-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 제1기(2019~2021), 제2기(2022~2024)
 - *제2기 :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돌봄종사자 보호 설정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 현황 정책영역

○ 성동구

- 전국에서 처음으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 202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필수노동자란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의 영역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일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 추진,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 수당 및 안전장구 및 심리 지원, 필수노동자 인식 제고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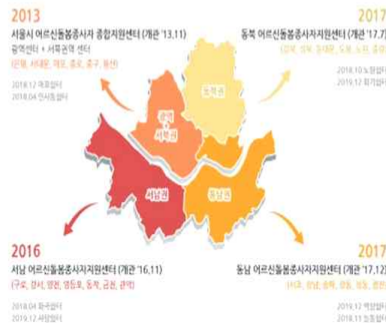


출처 : 성동구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ngdonggu1/222117506910>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 현황 실천영역 : 서울시 어르신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개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 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및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근거로 2013년 설립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출처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 현황
실천영역 : 서울시 어르신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개요

- 주요 사업
 - 교육권사업(직무교육, 인문문화교육, 직종별 교육 등)
 - 건강권사업(건강예방증진프로그램, 전문심리상담지원, 자조모임)
 - 노동권사업(공인노무사 노동상담, 돌봄노동자아카데미)
 - 좋은돌봄사업(캠페인, 좋은돌봄 사회적 협약, 좋은돌봄 한마당)
 - 정책연구사업(요양현장실행연구, 돌봄노동자플랫폼사업-자치구모임, 현장리더교육)
 - 기능강화사업(업무협약 등 네트워크사업, 광·권역 기능강화사업)
 - 코로나-19 대책반(정보제공, 정책제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 현황
실천영역 : 서울시 어르신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코로나19에 대응한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현황

- 노동권 보장 측면
 -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산재 신청 법률지원
 - 코로나19 이후 휴직이나 퇴직 관련 상담 등 공인노무사에 의한 노동 상담 진행
 - 코로나19 대책반 가동하여 지원정책 등에 대한 최신 정보 발신
 - 노동상담 주제별 통계(2020~2021)

연도	노동시간	임금	4대보험	실업	퇴직금	산업재해	부당업무	업무고충	성희롱	언어폭력	법제도	기타
2020	20건	162건	8건	109건	61건	45건	2건	22건	16건	6건	282건	123건
2021	32건	310건	82건	185건	181건	206건	23건	20건	7건	19건	366건	24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 현황

실천영역 : 서울시 어르신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건강권 보장 측면

- 요양보호사 코로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에 방역물품 지원의 시급성 요구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에게 7차례에 걸쳐 공적 마스크 60여만 장 배포
- 코로나로 인한 소진과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교육권 보장 측면

- 코로나 등 감염관리/대처방법 관련 교육 개설. 감염 대응을 위한 정확한 정보 취득 및 활용
- 비대면 교육으로의 신속한 전환
- 다양한 온라인교육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플랫폼(줌, 카카오톡tv, 유튜브) 적극 활용
- 온라인교육 플랫폼(돌봄이룸e-room) 구축
-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1:1 디지털 역량강화사업 실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본 과제

○ 돌봄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 돌봄 가치에 기반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재편에 대한 고민
- 돌봄선언(더 케이 컬렉티브, 2021)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기조로 한 복지국가에서 이제는 돌봄으로 이행하여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는 '돌보는 국가로의 전환' 필요
- Tronto(2014) : 돌봄이 정치적 이슈로 다뤄질 필요가 있음
누가 돌봄을 제공할지,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불리함은 없는지, 돌봄 수혜는 누가 받는지, 돌봄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 공공의 영역에서 논의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본 과제

○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사회로

- 코로나19를 계기로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돌봄 관련 정책에서는 여전히 돌봄수혜자가 중심대상이 되어 돌봄노동자는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석재은, 2020)
- 그리스의 돌리아(dulia) 전통
그리스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유모를 사회적으로 잘 돌봐주는 전통이 있음
돌봄을 잘 유지하기 위해 사회가 돌봄제공자를 잘 보살펴주는 것(석재은, 2020)
- 키테이(Kittay, 2016)의 돌봄정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물론 돌보는 사람의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본 과제

참고 : 일본의 '돌봄종사자를 돌봅시다(#ケアワーカーをケアしよう)' 프로젝트

-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야말로 우선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었으면 한다"
(프로젝트 제안자 주식회사 Blanket 아키토모 카이(秋本可愛) 대표)
- 코로나 감염 확산 속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에 밀착하여 그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후원하여 돌봄노동자를 응원하자는 취지로 진행



출처 : <https://careforcareworker.jp/>

정리

-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 돌봄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반해 그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충분치 않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이 생겨나고 돌봄노동자도 필수노동자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나 사회적 인정과 보상에 있어서 가시화된 것이 없음
 - 돌봄노동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중요성 측면에서는 저임금노동, 비숙련노동, 여성노동, 잔여노동이라는 인식이 여전
 - 돌봄수혜자에게만 맞춰져 있는 관심과 초점이 돌봄제공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로도 옮겨져 와야 할 때임

정리

- 돌봄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노력
 - 저임금을 경쟁력 삼아 돌봄노동을 착취하여 이들을 또 다른 취약계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둘리아 전통의 교훈처럼 사회가 돌봄노동자를 돌봄으로써 더 나은 돌봄으로 연결
돌봄을 받는 이용자들의 삶의 질 증진에도 기여
 - 돌봄 영역을 좋은 일자리로...
역량 있는 돌봄노동자 유입으로 좋은 돌봄의 선순환고리 형성 필요

한국사회적질학회 · 한국융합인문학회 · 고려대 한류융복합연구소 2022년 연합학술대회
2022. 6. 17 (금)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3168

팬데믹 시대,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의 주요 이슈

감사합니다

박지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연구원 / 우송대학교 강사)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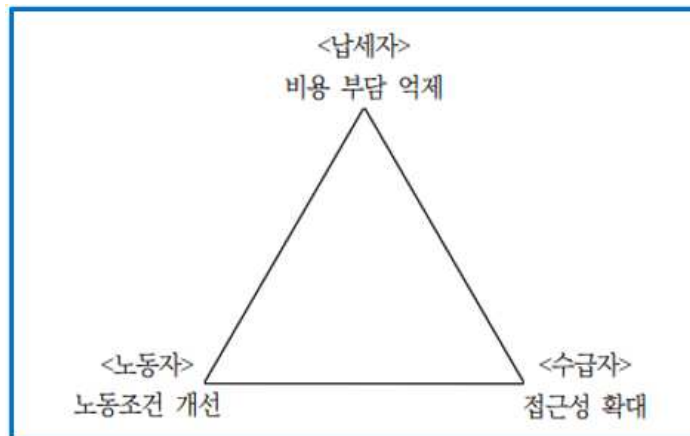
「팬데믹과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에 대한 토론

박범기

(한독교육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1.

본 발제문의 대상인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문제는 사회서비스 정책결정의 전형적 트릴레마(Trilemma)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릴레마는 3가지의 입장이나 문제들이 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딜레마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도식구조와 같이 장기요양보험은 국가 주도로 설계가 되어, 납세자의 비용 부담은 억제하고 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접근성은 확대되는 것이 고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트릴레마 상황에서는 '각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힘 등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의 문제는 결정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 허은(2019). 사회서비스 정책결정의 트릴레마와 노인돌봄노동의 저임금. *산업노동연구*, 25(3), p. 214.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돌봄 노동자는 가치적으로 전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학력의 소모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돌봄 노동자의 지위가 최하위에 위치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제자께서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가 코로나 이후 더욱 불안정한 노동에 처하게 되고, 안전하지 못한 노동으로 전락한 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론에서 지적했듯 산업사회에서 약자계층이 위험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장기요양 돌봄노동자는 여러 관점에서 시사점과 함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

본 발제문은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와 관련되어 현재까지 나온 이슈들과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1) 코로나 이전의 장기요양 돌봄노동 주요 이슈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실태를 중심으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점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2) 코로나 이후의 장기요양 돌봄노동의 주요 이슈로 더욱 불안정한 노동의 위치, 안전하지 못하며 과중한 노동상황에 처한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상징되는 위험사회의 위험이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동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요한 논의지점을 구현해주셨다고 사료됩니다. 3) 발제자께서 코로나 이후 장기요양 돌봄노동자 지원현황을 보여주시고 발제했던 논의들을 정리해 근본적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3.

본 발제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지점이 생성되어서 본 토론문에 기술하고자 합니다.

- 1) 본 토론자가 서두에서 제기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트릴레마 문제입니다. 특히 장기요양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세력과 관련한 논의지점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 부분은 허은(2019)의 연구에서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질 때 관련 당사자들보다 국가인 보건복지부가 노인돌봄 의제를 선점하며 정책결정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안 거의 그대로 입법화되었습니다. 국가의 입장은 재정지출 역제를 근간으로 했고 법의 수급자인 노인들과 결탁한 주요 정당들은 수급자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봄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세력은 없는 상태에서 노인돌봄 일자리가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채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돌봄 노동자의 이해자가 될 수 있는 노동진영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

국노총은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했으며 돌봄노동자의 이해는 도외시켰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를 대변할 세력조성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장기요양 노동자 노조의 힘이 커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2) 다음으로 장기요양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이 노동이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현재 요양돌봄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숙련된 노동이라는 가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령 돌봄의 경제적 모델에서 이에 대한 투자가 건설영역보다 고용이나 경제적 가치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De Henau의 연구는 시사점을 줍니다.

4.

본 연구의 대상과 주제는 상당한 연구가치와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자가 상술(上述)했듯 발제자께서 본 주제와 관련된 시안들을 꼼꼼히 정리해주셔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와 관련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토론자가 논의한 지점들도 연계해 고민해 본다면 생산적인 연구물들로 전화(轉化)되리라 기대됩니다. 발제해주신 박지선 박사님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성인학습자 교육 : 변화와 발전

강미희

(서울디지털대학교 복지학부 강사)

한용인·한사질·고대한용연 2022 연합학술대회
(2022. 6. 17.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316B)

코로나19 이후 성인학습자 교육 : 변화와 발전

강미희

(서울디지털대학교 복지학부)

목 차

1. 평생교육의 확산
2. 코로나19로 인한 성인학습자 교육의 변화
3. 성인학습자 교육에서 온라인 학습의 장점
4. 성인학습자 교육에서 온라인 학습의 단점
5. 코로나19 이후 성인학습자 교육의 발전
6. 참고문헌

I. 평생교육의 확산

1) 정부의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

- ①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 제공 강화
- ②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의 허브로 육성

2)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자체강화

- ① 지역 단위 풀뿌리 평생교육 활성화
 - ② 지역의 자생적 평생교육 역량 강화
 - ③ 지역사회의 자발적 평생교육 실현
- =>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

2

II. 코로나19로 인한 성인학습자 교육의 변화

- 1) 성인학습자의 증가
- 2) 고등교육 진학하는 성인학습자 증가
- 3) 원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3

Ⅲ. 성인학습자 교육에서 온라인 학습의 장점

- 1) 성인학습자들의 주도적인 조직구성, 아이디어 탐색 및 표현
 - 2) 정보의 즉시성 및 접근성 증가
 - 3)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 데이터 확인 및 분석
 - 4) 적극적 의사소통과 협력 활동 증가
 - 5) 동기부여와 학습참여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 6) 기기가 지니는 휴대성과 이동성 향상
- => 형식 및 비형식교육이 가진 각각의 독특한 장점을 결합
=> 교실 안과 밖의 경계없이 학습을 연결
=> 평생교육과 원격교육의 조합은 평생학습사회 구축에 일조

4

Ⅳ. 성인학습자 교육에서 온라인 학습의 단점

- 1) 성인학습자 대상 전문강사의 부족
 - 2)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학습방법 부족
 - 3)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 시 강의 관련 피드백이나 평가 미흡
 - 4) 정보통신기기 및 온라인 학습시설 활용의 어려움
 - 5) 이수한 과정의 학습 정도에 대한 저평가
 - 6) 성인학습자와 교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 => 중도포기 성인학습자 증가

5

V. 코로나19이후 성인학습자 교육을 위한 발전

◎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 또는 비대면, 비대면과 대면의 혼합 학습 환경은 급속도로 진화할 전망이다

- 1)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및 비대면 교육 관련 연구의 확대
- 2)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다양한 학습방법 개발 방안 마련
- 3)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4) 온라인 상담의 확대 방안 마련

6

참고문헌

- 김용덕, 최동현(2020).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활동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1149-1171.
- 김은경, 김나영, 오나비나, 김미정(2021). COVID-19 상황에서 평생교육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경험에 관한 연구. *교원교육*, 37(4), 345-369.
- 김인숙, 박현정, 김은성(2020). 평생학습 실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 분석: S 구 주민과 평생교육 담당자를 중심으로. *교육컨설팅코칭연구*, 6(4), 05-22.
- 서종택(2019). 원격평생교육에서 학습자 로그데이터 및 개인배경 데이터에 기반한 전공계열별 수료가능성 탐색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유정, 양은아(2020). 지역사회 기반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26(3), 97-13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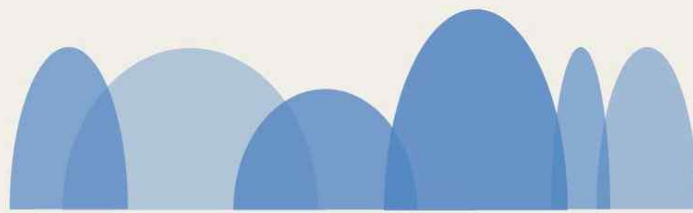
- 윤혜순(2018).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평생교육·HRD연구*, 14(4), 85-109.
- 조은순, 이운지(2022). 코로나 시대의 성인학습자 대상 온라인 평생학습 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 연구 - 대전시민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18(1), 37-62
- 황영아, 이선희(2020). 수업분석 도구 개발 및 적용을 통한 대학 내 성인학습자 대상 블렌디드 러닝 수업 운영 개선 방안 모색. *평생학습사회*, 16(3), 205-226.
- 황지원, 강주연, 남신동(2013). 원격고등교육기관 재학생 특성 비교 분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IED 통계분석보고 2013-2호.
- Bransford, J., Stevens, R., Schwartz, D., Meltzoff, A., Pea, R., Roschelle, J., Vye, N., Kuhl, P., Bell, P., Barron, B., Reeves, B., & Sabelli, N. (2006). Learning theories and education: Toward a decade of synergy. In P. Alexander & P. Winne (Eds.),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2nd Ed.). Mahwah, NJ: Erlbaum.

8

- Reeves, T. C. (2006). Design research from the technology perspective. In Akker, J. V., Gravemeijer, K., McKenney, S., Nieveen, N. (Eds.), *Educational design research* (pp. 86-109). London: Routledge.
- Sharples, M. (2000). The design of personal mobile technologies for lifelong learning. *Computers and Education*, 34(3), 177-93.

9

감사합니다



[토론문]

「코로나19 이후 성인학습자 교육」에 대한 토론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영상문화학부 교수)

현재 한국은 이미 고령화사회를 맞이한 상황으로 초고령화사회로 이행되는 있는 과정에서 성인 학습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기존 평생교육의 형태가 유지되어 오던 성인학습자 교육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성인학습자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예전처럼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삶을 지탱하기에는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 환경이 바뀌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성인 학습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2020년 2월부터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 팬데믹은 성인 학습자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일과 병행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던 성인학습자 교육이 상당수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교육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교와 같은 원격대학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비대면 학습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적용되면서 성인학습자 교육에서도 온라인 교육의 장단점을 따져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봅니다. 사이버대학에 재직 중인 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발표자에게서 발표문에 정리하신 온라인 학습의 장단점에 공감도 하면서도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의 발전적인 연구의 진행과 완성을 위하여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발표자께서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으로 제시하신 내용 중에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력 활동 증가' 와 '동기부여와 학습 참여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제일 힘든 점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온라인 교육에서 제일 힘든 지점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학습자의 학습 태도와 참여도를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참여의 강제성이 약하고 자발성에 의지해야 하는데 강의실 밖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동기부여나 학습 몰입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온라인 학습의 단점에서 정리하신 내용 중에 중도 포기 성인학습자의 증가와도 연결되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인학습자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의 단점으로 정리하신 내용 중에 '성인학습자 대상 전문 강사의 부족' 을 거론하셨는데요. 성인학습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성인학습 강사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발표자의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강사가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온라인 교육 시스템과 온라인 학습 도구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성인학습자 교육에도 온라인 교육의 비중을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발표문은 이 같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대처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상황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연구가 발전적인 완성으로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복지정책의 조건과 전망

박보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복지정책의 조건과 전망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돌봄과 교육_04



한용인·한사질·고대한용연
2022 연합학술대회

- 발표: 박 보 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일자: 2022. 6. 17.
- 장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316B

Contents

- 1 복지국가와 교육: 교육복지정책
- 2 교육복지정책의 역할
- 3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복지정책: 진단과 처방

2022-06-172022 연합학술대회2

1. 복지국가와 교육 : 교육복지정책

교육복지정책의 이해: 기본 틀



1. 복지국가와 교육 : 교육복지정책

한국 교육복지정책의 현황

정책수단		지원원칙	지원대상	급여형태	급여종류
전통	사회보험	보편	전국민(경제활동인구)	현금, 서비스	고용보험직업훈련프로그램
	공공부조	선별	교육취약계층	현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사회서비스	보편/선별	전국민, 교육취약계층	서비스	무상급식*, 누리과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프로젝트,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사회수당	보편	전국민(인구학적기준)	현금	아동수당
비전통	바우처	선별	교육취약계층	상품권	급식지원카드
	기회	선별	교육취약계층	무형자원	대입사회적배려자전형

* 주 : 사회서비스 중 무상급식, 누리과정은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임.

2. 교육복지정책의 역할

교육불평등 완화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보장
- 저소득층 자녀의 생활·교육환경 변화
- 통합적인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 위기학생에 대한 다중 안전망 제공
-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구축

사회투자

- 건강한 미래시민 육성
- 양질의 미래 노동력 확보
- 직업·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충수요 진작
- 탈상품화된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 신장

3.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복지정책 : 진단

코로나팬데믹과 교육: 방역의역설

“교육공백의 빛을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이 떠안는다”



3.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복지정책 : 처방

교육복지 지원금 및 현물지원

- 교육취약계층(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현금지급
- 교육취약계층 디지털기기 지급

사회적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

- ICT, AI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지원 (예컨대 장애유형별 지원)
- 가정교육지원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교육공백 복구·회복 프로그램(캐치업 패키지)

- 학력양극화 및 학력격차 완화 프로그램
- 문화자본 함양 프로그램

저소득층 자녀 건강 토탈 케어

- 정신건강 관리
- 신체건강 관리
- 영양관리(결식아동지원)

감사합니다

[토론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토론

조한상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코로나로 인간의 거의 모든 일상이 잠시 멈추는 충격을 경험했다.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때마침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의미와 성격, 파급효과, 회복 방안에 대하여 저마다 논하고 있으며, 교육 영역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표현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강의실을 온라인으로 옮겨서 거울 세계에 비춰보니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 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로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지만, 약간의 이득도 남겼다.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 간과되었던 교육의 문제는 적나라하게 그리고 충격적인 형태로 드러났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전의 변화를 ‘단절시키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전의 변화를 ‘가속하는’ 위기이기도 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사이버 강의 등 비대면 교육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정부와 사회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과제였다. 고등교육 차원에서 교육부는 교육과정 중 사이버교육의 비율 제한을 풀어 놓는 것으로 문제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이것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는, 교육 공백으로 인한 학습 성과의 양극화 문제도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양극화 기조와 더불어 교육 영역의 양극화는 이미 심각하였고, 코로나는 그것에 속도를 더한 것이었다.

교육 양극화 문제는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고, 같은 조에서 무상의 의무교육을 규정하는 등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은 출

발선의 평등, 즉 기회의 균등을 담보하는 중요한 장치이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헌법이 상정하는 자유주의 질서의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는 팬데믹의 사후 정산 과정이기도 하다. 질서가 붕괴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의 또는 검증되지 않은 극약을 처방하여 사용했으므로, 남겨진 후유증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찾아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자원의 병목 현상, 나아가 국제 분쟁 등이 이러한 후유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심각해진 교육 양극화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복지는 국가와 사회 질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복지는 중요성과 함께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기존의 복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물이 아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는 극대화하고 복지비용은 최소화하는 기본소득 이론에서도 이러한 특수성이 드러난다. 의료 서비스와 함께 교육에서는 현금 지급으로 공공지원을 대체할 수 없으며, 공공의 주도로 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변이 없는 한 코로나는 복지 서비스의 민간화, 상품화 경향 역시 가속화 할 것이며, 교육복지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역 공동체의 역할은 줄어들고 사교육 시장의 지분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고 또 담당해야 할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더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다. 이대로라면 교육복지는 실효성을 잃어 의도한 결과를 도출되지 못하고, 교육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위험이 크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말이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말이 유행했었다. 코로나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이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이 많지 않음이 조금은 의아하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그 실현 전략을 다시 묻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교육복지 역시 기존 대안의 종합을 넘어, 방향을 점검하고, 추진 주체로서 학교의 위상을 정립하며, 그를 통한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이형기 시에 나타난 멜랑콜리의 특성 연구

이재훈

(건양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I. 서론

본고는 이형기 시에 나타난 멜랑콜리(melancholie)의 특성을 다각도로 탐색한다. 이형기 시에 멜랑콜리의 특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형기(1933~2005)는 1950년 『문예』를 통해 문단활동을 시작한 이래 8권의 시집을 상재했다.¹⁾ 이형기의 시세계는 자기갱신의 양상이 전통서정과 모던의 양극단 세계를 점할 만큼 뚜렷하다. 초기의 전통적 자연 서정의 세계, 중기의 주지주의적인 날카로운 감성의 세계, 후기의 생태학적 고발과 문명비판의 세계로 변화하며 끊임없이 자기갱신과 새로운 언어미학을 실험하였다. 시인뿐 아니라 자신만의 시론을 가진 비평가로서도 큰 족적을 남긴 시인으로 평가받으며 고유한 시사적 위치를 얻고 있다.

이형기는 그동안 크게 다섯 가지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첫째, 시세계의 변모과정을 다룬 연구이다. 김경미(2000)는 이형기 시를 네 가지 시기(허무 인식, 부정 시학, 문명위기의식, 초월의식)로 구분하여 시세계의 변모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강유환(2008)은 이형기 시의 세계인식 방법을 동일성 추구, 불화의 세계, 생성의 세계 등의 변화를 바탕으로 파악한다. 최옥선(2013)은 이형기 시정신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최옥선은 “양가성을 가진 모순의 세계와 순환적으로 회귀하는 세계의 섭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했는지”(최옥선, 2013: 18)를 시 전체 과정을 통해 추적한다. 김혜숙(2014)은 이형기 시의 변모양상을 창작방법과의 연관성에서 파악한다.

1) 8권의 시집은 다음과 같다. 『적막강산』(모음출판사, 1963), 『돌베개의 시』(문원사, 1971), 『꿈꾸는 한발』(창원사, 1975), 『풍선심장』(문학예술사, 1981), 『보물섬의 지도』(서문당, 1985), 『심야의 일기예보』(문학아카데미, 1990), 『죽지 않는 도시』(고려원, 1994), 『절벽』(문학세계사, 1998). 작고 이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36편의 신작시를 발표하였다. 『이형기 시전집』(이재훈 편저, 한국문연, 2018)은 미발표 신작시까지 모두 망라한 유일한 전집 텍스트이다. 시집뿐 아니라 11권의 시론집과 평론집을 상재했다.

둘째, 생태학적 관점을 통한 문명비판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이다. 이윤경(1999)은 이형기 시의 후기작품들을 도시시로 명명하고 도시문명이 시에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준다. 최춘희(2001) 또한 『심야의 일기예보』와 『죽지 않는 도시』를 생태학적 상상력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맹승렬(2008)은 세 시기로 시집을 구분한 뒤 각 시기의 대표적인 시집으로 『적막강산』, 『꿈꾸는 한발』, 『죽지 않는 도시』를 상징하고 이를 생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조효주(2014)는 『심야의 일기예보』와 『죽지 않는 도시』를 통해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을 ‘순환성’을 통해 이루어낸다고 해석한다.

셋째, 허무주의의 관점을 비롯한 새로운 주제의식을 통해 분석한 연구이다. 유재천(2007)은 비극적 존재와 역설적 세계 인식의 관점에서 허무와 역설의 개념을 통해 시를 바라본다. 손남훈(2007)은 이형기 초기시를 소멸의식으로 파악하여 고찰한다. 유혜란(2009)은 이형기의 허무의식을 공간 인식의 관점에서 해명하고 있다. 김지연(2009)은 이형기 허무의식의 발현 양상을 비극적 인식과 악마적 방법론으로 분석한다. 이자영(2013)은 이형기의 허무를 소멸, 생성, 초월로 규정짓고 이를 ‘연금술적 상상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석한다. 백운화(2014)는 이형기 시에 나타난 서정성을 니체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명하고 있다. 장만호(2018)는 아이러니적 인식을 중심으로 시세계를 해석하고 있다.

넷째, 수사학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이다. 곽용석(2001)은 이형기 초기시의 이미지를 연구한다. 최규형(2002)은 물의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나민애(2004)는 이형기 시에 나타나는 몸의 변이 양상을 생성의 개념을 통해 해명하여 이형기 시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별(2013)은 이형기 시의 언술과 주체를 자기구축의 언술과 내향적 주제, 자기규정의 언술과 외향적 주제로 분석한다. 배옥주(2014)는 이형기 시에 나타난 이미지를 감각적 이미지, 악마적 이미지, 역설적 이미지로 구분하여 해석한다.

다섯째, 이형기 시론에 관한 연구가 있다. 허혜정(2005)은 이형기의 시론을 가리켜 “자멸과 생성을 반복하는 ‘묵시록적 상상력’과 ‘우보보로스의 미학’이라는 명제로 압축”될 수밖에 없으며 “시론 밑바탕에 깔려 있는 연기(緣起)와 공(空)의 세계는 끊임없는 혁명이요 절대적 부정 이요 우주질서의 궁극의 표현에 다름 아닐 것” (허혜정, 2005: 398)이라고 파악한다. 김동중은 “시적 변환구조에서 보여지는 사상적 변모와 그가 상재한 시와 시론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시대사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나 새롭게 조명” (김동중, 2012: 1)하려는 목적으로 논의를 개진한다. 문혜원(2010)은 이형기 초기 비평의 인상 비평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해명한다. 양정현(2018)은 이형기의 초기비평과 일본 비평가인 고바야시 히데오와의 연관과 영향관계 속에서 시론을 규명하고 있다.

위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형기 연구는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들어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 방법이 개진되고 있다. 이형기 연구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들은 수사

학적 방법론 혹은 허무주의 이외의 방법론을 통한 해석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형기 해석의 새로운 증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멜랑콜리'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형기의 시는 문명체험의 한가운데서부터 가장 폭발적으로 창작되었다. 초기시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자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의식 결여'의 세계이다. 그가 체험한 문명은 인간성 상실의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후기시에서는 죽음을 목도한 시적 자아의 결연한 의지가 우울한 정조와 함께 제시된다. 이러한 부분을 상실의 멜랑콜리와 영웅적 멜랑콜리는 관점을 통해 해명하려고 한다.

II. 멜랑콜리의 이론적 배경과 시적 지향성

멜랑콜리는 한국 현대시의 한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신분석학, 철학적 개념이다. 멜랑콜리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형기 시를 분석하는 것은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해석 방법이다. 이를 통해 이형기 시세계의 해석 지평을 넓히는 단초로 삼고자 한다.

문학시는 문학의 감정적 수위와 표출에 대해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정서의 숨김과 드러냄이라는 변증법적 방법론을 분석하면서 숨김의 미학을 미학적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정서의 과도한 드러냄은 자기학대 혹은 그로테스크의 미학이나 아방가르드 문학의 일종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이러한 정서가 허무주의, 비관주의, 부정의식 등의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시대적 고뇌의 산물로 해석되곤 했다. 허무와 비관의 개념 속에서 멜랑콜리의 정서는 이성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평가받으면서 시적 장치 혹은 암울한 시대를 상징하는 개념어로 지칭되었다. 즉 이성적 사유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감정적 증상 혹은 무의식에서 발생하는 감정 증상으로 이해되어 왔다.²⁾ 멜랑콜리를 둘러싼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아래 김홍중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중후반 이후에 이처럼 문화의 한 차원으로 구조화되는 권태, 슬픔, 무기력, 멜랑콜리, 허무감, 무사감(insouciance), 피로감 등의 정서군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서구의 체액설에 의해 흔히 '우울질'의 감정형식으로 분류되어왔고, 오랫동안 서구인의 심성 속에서 신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점성술에 의해 '토성'(Saturn)의 감정이라 일컬어져 왔다. 나태함, 게으름, 몽상, 느

2) 비이성적 영역인 멜랑콜리는 주로 심연의 고독, 병적인 광기, 퇴폐적인 충동 등과 관련되는 현상으로 이해되었으며, 체액 병리학, 심리학 등의 차원뿐만 아니라 철학과 문학에서도 오래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오형엽, 2010: 374).

림, 어둠, 깊이 등의 다양한 속성들이 부여된 이 토성의 감정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특성은 이들이, 고전적 의미의 열정처럼 적극적으로 분출되는 감정이 아니라 열정의 결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쇠락, 즉 감정의 불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김홍중, 2006: 2-3)

김홍중은 멜랑콜리를 우울질의 감정형식으로 분류화한다. 감정을 분류하는 방법론으로 점성술을 들고 있다. 점성술에 의한 우울질의 감정은 나태함과 어둠과 깊이 등처럼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멜랑콜리는 다양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개념이다. 멜랑콜리의 어원을 따라 올라가면 히포크라테스의 체액 병리학으로부터 출발한다.³⁾ 멜랑콜리는 그리스어 melancholia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검다 melas’ 와 ‘담즙 chole’ 의 복합어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인체를 공기, 물, 불, 흙의 네 가지 원소에 상응하는 체액인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멜랑콜리는 흑담즙(schwarze Galle)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병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크리스테바는 멜랑콜리를 “한 개인에게 순간적으로 혹은 만성적으로 소위 말하는 흥분 상태의 편집증 단계와 매우 자주 번갈아 나타나는 억제와 기호 해독 불능증이라는 정신병 증후”(크리스테바, 2004: 20)로 해석한다.⁴⁾ 최문규는 “슬픔, 우울, 고독, 무기력 등과 같은 심리적 현상을 수반하는 멜랑콜리는 무엇보다도 자아가 대상을 상실함으로써 겪는 감정 상태”(최문규, 2005: 212)로 멜랑콜리를 요약한다.

멜랑콜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을 먼저 고찰해 봐야 한다. 이후 라캉과 지젝⁵⁾과 크리스테바에 의해 다시 논의되며 재해석되고 있다. 프로이트는 애도와 멜랑콜리⁶⁾의 차이와 상관관계에 대해 먼저 분석하고 있다.

“애도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理想)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종류의 상실감이 애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멜랑콜리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략)… 반면에 멜랑콜리의 특징은 심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낙심,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의

3) 체액 병리학(Homoralpathologie)에서 제시되는 멜랑콜리의 근원적 어원과 히포크라테스, 갈렌의 논의는 최문규(2005: 201-203)를 참조하라.

4) 크리스테바는 멜랑콜리와 우울증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멜랑콜리’와 ‘신경증적 우울증’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우울증과 멜랑콜리가 실제로 그 경계선이 불투명하여 ‘멜랑콜리적-우울증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총체라고 간주하면서, 흥분 상태의 편집증 단계와 자주 번갈아 나타나는 억제와 기호 해독 불능증이라는 정신병 증후를 멜랑콜리라고 부르고, 낙담과 흥분 상태의 두 현상이 강렬하지도 빈번하지도 않을 경우 신경증적 우울증이라고 부를 수 있다.”(크리스테바, 2004: 20)

5) 지젝은 인간의 욕망 구조가 항상 ‘욕망의 원인’을 경유하여 ‘욕망의 대상’으로 향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주체에게 ‘욕망의 대상’은 존재하지만 ‘욕망의 원인’이 상실될 때 멜랑콜리가 생겨난다고 분석한다(오형엽, 2010: 384).

6) 번역본에서는 ‘애도’를 ‘슬픔’으로, ‘멜랑콜리’를 ‘우울증’으로 번역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멜랑콜리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한다.

중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모든 행동의 억제,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를 정도로 자기비하(自己卑下)감을 느끼면서 급기야는 자신을 누가 처벌해 주었으면 하는 징벌에 대한 망상적 기대를 갖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프로이트, 1997: 248-249)

애도와 멜랑콜리는 비슷하면서도 내면으로 들어가면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애도와 멜랑콜리가 모두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상실은 애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멜랑콜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멜랑콜리는 애도에 비해 좀 더 깊고 복잡한 감정적 상황을 지니고 있다. 낙심, 관심의 중단, 사랑 능력의 상실, 행동 억제, 자기비하, 자기 징벌의식 등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멜랑콜리에 의한 상실은 몇 가지 과정을 거쳐 대상 상실에서 자아 상실로 진화된다.⁷⁾ 상실의 개념은 “대상 상실은 자아 상실로 전환되고, 자아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은 자아의 비판적 활동과 동일시에 의해 변형된 자아 사이의 분열로 바뀌어”는 과정을 거친다(프로이트, 1997: 257).

프로이트가 애도와 차이점을 통해 멜랑콜리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증이란 의식에서 떠난 (무의식의) 대상 상실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지만, 반대로 슬픔의 경우는 상실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프로이트, 1997: 251)이다. 둘째 “우울증 환자는 슬픔의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것, 즉 자애심의 급격한 저하, 말하자면 상당한 정도 자아의 빈곤을 내보인다. 슬픔의 경우는 빈곤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울증의 경우는 바로 자아가 빈곤해지는 것”이다(프로이트, 1997: 251-252). 프로이트는 논의를 이어가며 애도와 멜랑콜리의 증상이 모두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가장 차이가 나는 큰 특징으로 ‘자애심(自愛心)의 추락’을 들고 있다. 즉 ‘자애심의 추락’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멜랑콜리의 개념은 최근 들어 다른 차원의 해석으로 진화되어 갔다. 멜랑콜리가 허무주의, 비관주의, 부정의식 등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일종의 감정적 대표성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로 시인의 시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즉 멜랑콜리가 가진 정신분석학적 입장, 본성적인 언어의 드러냄, 내면적 파토스 등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문학작품을 사회적 조건과의 관계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본성과 내면세계의 집합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프로이트와 같은 정신분석학자들은 멜랑콜리를 부정적인 정신병리의 결과로 파악한다. 하지만 문학에서 멜랑콜리는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최문규는 이를 가리켜 “멜랑콜리한 자의 ‘시악한 시선’은 현실부적응 혹은 사유 속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현실비판의 언술과

7) 우울증 환자는 대상과 관련된 상실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자아와 관련된 상실감이라는 것이다(프로이트, 1997: 254).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 (최문규, 2005: 210)을 꼽고 “멜랑콜리는 정신적 질병이 아니라 예술을 위한 필수적인 요인” (최문규, 2005: 204)으로 해석한다. 멜랑콜리를 부정적인 태도로 파악하는 관점의 이면에는 현실부적응 혹은 현실도피로 대상을 바라본다. 이는 멜랑콜리는 표상적으로만 파악하는 단순한 해석이다. 멜랑콜리가 배태되는 과정의 이면에는 적극적인 현실인식과 자아성찰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로 봐야 한다. 김홍중은 그동안 멜랑콜리를 “몽롱한 허위적 감정의 사치”로 인식되었지만 이는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파악한다. 멜랑콜리는 “멜랑콜리는 문화적 모더니티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코드이며, 대다수의 문화적 산물들의 심정적 배경을 구성하는 문화해석학적 열쇠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홍중, 2006: 4)고 말한다.

멜랑콜리가 정신분석학에 의한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근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논하고 있다. 문학의 멜랑콜리는 긍정적인 감정의 발산이며, 이는 문학의 정신적 활동으로 평가되면서 가장 긍정적인 문학의 방법론으로 연구되고 있다.

멜랑콜리를 긍정적인 문학의 요인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발터 이다. 그는 『독일 비애극의 원천』에서 바로크의 비애극에 등장하는 이미지와 인물을 멜랑콜리의 관점으로 분석한다.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의 표상과 루터주의에 입각한 도덕적 순결주의와 복종에 의한 허무의식이 멜랑콜리의 시각으로부터 배태된 것으로 파악한다.

비극의 이론에 대한 대응물로서 파악될 수 있도록 모습을 드러내는 비애의 이론은 따라서 오직 멜랑콜리적 인간의 시선 아래 드러나는 세계의 묘사 속에서만 펼쳐진다. 왜냐하면 감정은 그것이 아무리 자아에게 애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운동성이 있는 반사적 태도로서 구체적으로 구조지어진 세계에 대답하기 때문이다.(벤아민, 2018: 209-210)

발터 이 비애의 이론을 해석하면서 논거로 삼은 멜랑콜리에 대한 인식은 이후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멜랑콜리를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 혹은 병리학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여 철학적 혹은 문학적 분석의 적극적인 도구로 삼기 시작했다.

한국 문학 분석의 개념어로서 멜랑콜리는 이미 유효한 성과를 많이 얻고 있다.⁸⁾ 오형엽은 ‘멜랑콜리의 문학비평적 가능성’을 통해 현대문학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화와 참조틀을 마련하는 시도를 했다. 즉 알레고리, 멜랑콜리, 숭고, 주이상스의 개념을 분류하고 계열화하여 현대시를 이해하는 분석틀로 제시하였다.⁹⁾

8) 대표적으로 오형엽(2010), 정끝별(2012), 류신(2012), 박상수(2017) 등을 들 수 있다.

9) ‘알레고리’, ‘멜랑콜리’, ‘숭고’, ‘주이상스’라는 네 가지 개념은 각각 ‘상징’, ‘에도’, ‘비쾌락 원칙’이라는 대립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상징/알레고리’의 대립 쌍이 양식적 차원을 비롯하여 표현의 근본적 동인(動因)으로서 세계관 및 역사관까지 포함하는 정신적 차원에 해당하고, ‘에도/멜랑콜리’의 대립 쌍이 주체의 감응적 차원에 해당한다면, ‘미/숭고’의 대립 쌍은 문학의 미학적 범주의 차원에 해당하고, ‘쾌락 원칙/주이상스’의 대립 쌍은 주체의 충동적 차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오형엽,

이형기 시에 드러나는 허무의 양상이 서구 철학의 니힐리즘으로 분석되는 것과는 다른 해석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이형기 시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우울의 양상은 여러 특성을 지니며 발화되고 있다. 이형기 시의 멜랑콜리는 사회학적 토대 위에서 발현된 극도의 자기부정과 문학적 연결성이 함께 수렴되어 있다. 이형기가 활동한 전반적인 시대는 전쟁 이후 문명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성의 상실과 공동체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멜랑콜리의 수사적 태도를 지닌 것이다. 즉 이형기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문학의 수사적 행위로서 멜랑콜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형기가 체험한 문명을 통해 자아의 상실을 경험한 멜랑콜리의 특성을 살펴본다. 상실의 멜랑콜리를 경험하고 난 후 병든 자아를 극복하고 관조와 포용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영웅적 멜랑콜리의 특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형기의 후기시에 해당하는 세 권의 시집 『심야의 일기예보』(1990), 『죽지 않는 도시』(1994), 『절벽』(1998)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이형기 시에 나타나는 멜랑콜리의 특성을 작품 분석을 통해 해명하려 한다.

Ⅲ. 문명체험과 상실의 멜랑콜리

이형기의 후기시에 해당하는 『심야의 일기예보』(1990), 『죽지 않는 도시』(1994), 『절벽』은 모두 1990년대에 발표되었다. 이형기의 후기시는 초기시의 전통서정을 방법론으로 한 달관의 세계, 중기시의 모더니즘과 불화의 세계를 담은 문명비판의 세계를 거친 허무와 자각의 변증법적 세계를 지향한다. 세계와의 불화와 조화를 함께 끌어안은 변증법적 세계를 지향하면서 자아에 대한 상실과 소멸을 반복하여 표출한다. 이형기가 체험한 1990년대는 80년대부터 시작된 문명의 발달로 인한 폐해와 인간성 상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연대였다. 이형기는 문명체험을 통해서 시인이 바라보는 시적 대상에 대한 '상실'을 경험한다.

학교 주변 뒷골목에는/낙첨된 주택복권을 사들이는/가게가 있다//혹시나 혹시나/몰래 숨긴 1억 원짜리 꿈이/역시나 허탕으로 꺼져야만 반기는/심술꾼 가게 주인//군대로 치면/이들은 모두 전사 자지요/그러니 다시는 죽을 리 없는/불사의 군대만을 모으고 있지요//과연 그는 백전노장/지고 쫓기는 덴 이끌이 나서/도주하는 밤길/그 어둠조차도 절망으로 불 밝힌다//이유는 무슨 이유/다만 취미/허탕을 위한/꿈 많은 복권 구매자여 들으라/나의 취미는 멸망이다
— 「나의 취미는 멸망이다」 전문

2021: 14).

빈 들판이다/들판 가운데 길이 나 있다/가물가물 한 가닥/누군가 혼자 가고 있다/아 소실점/어느 새 길도 그도 없다/없는 그 저쪽은 낭떠러지/신의 함정/그리고 더 이상은 아무도 모르는/길이 나 있다 빈 들판에//그래도 또 누군가 가고 있다/역시 혼자다

— 「길」 전문

「나의 취미는 멸망이다」의 화자가 바라보는 세계는 “학교 주변 뒷골목”이며 그 세계의 주인공은 “심술꾼 가게 주인”이다. 뒷골목이라는 시적 배경과 심술꾼이라는 인물 유형은 시인이 세계를 불화와 부정의 방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불화의 배경에서 인물의 행위는 “낙첨된 주택복권을 사들이”거나 “몰래 숨긴 1억 원짜리 꿈이/역시나 허탕”이라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 유형은 문명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이다. 시인은 이러한 인물을 “모두 전사자”라고 지칭한다.

시인이 바라본 세계는 폐허의 공간이며 인물은 패배를 경험하는 실패의 인간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시인은 ‘대상 상실’을 경험한다. 시인이 경험하는 대상은 모두 상실의 경험을 공유한 자들이다. 상실의 경험이 반복되어 더 이상 상실이 상실로 느껴지지 않는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준다. 심술꾼 주인은 “지고 쫓기는 덴 이골이” 난 백전노장이다. 멸망의 길로 이르는 백전노장은 “나의 취미는 멸망”이라는 극단의 허무 속으로 침잠한다.

시 「길」의 공간적 배경은 “빈 들판”이다. 이미 비어 있는 공허에서 시는 시작한다. 공허에서도 길은 나 있고 그 길을 걷어가는 시적 대상이 있다. 길을 가는 인물은 ‘혼자’ 길을 간다. 홀로 가는 길이 인간의 숙명처럼 보인다. 여기서 대상 상실이 나타난다. “길도 그도 없다”는 선언은 상실의 극단적 상황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시인이 구가하는 상실의 감정은 “신의 함정”으로 표현된다. 이것 또한 상실에 대한 감정이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홀로 길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누군가 가고” 있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위의 시에 등장하는 ‘그’는 화자와 동일시를 이루는 존재이다. 즉 상실을 경험하고 홀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시인 자신이면서 또한 우리들인 것이다. 위의 두 시는 대상 상실을 통해 자아 상실로까지 나아가는 지점을 보여준다.

자아상실은 멜랑콜리의 특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아상실의 특성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가 표출되며¹⁰⁾ 세계와 불화를 겪는 화자가 등장한다.

이 도시에는 이제 까마귀가 없다/하필이면 잘 갠 아침니절에 찾아와서/까옥 까옥 까옥/환한 날빛

10) 바로크 비애극에 등장하는 신원 불명의 시체들, 피가 든 술잔, 잘린 목, 해골과 뺨조각 등의 사물들도 파국에 내맡겨진 몰락으로서의 역사를 의미하는 ‘멜랑콜리’의 표상인 것이다. 결국 이 루터주의로부터 읽어내는 멜랑콜리는 ‘엄격한 도덕성 및 의무에 대한 복종’과 ‘공허한 세상에 대한 허무의식’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오형엽, 2021: 21).

속에 감추어진 어둠을/재수 없이 쪼아대는/그 불길한 검은 새는 사라졌다 …(중략)… 사건 사고는 /아무리 커도 하루 만에 잊는다/전쟁쯤이야/안방에서 즐기는 전자오락 게임/그래도 더 많은 행복 이 필요할 땐/청소년용 값싼 본드와 부탄/신사숙녀의 품위를 지켜주는 히로뽕/일회용 주사약도 준비되어 있다//하지만 행복은 까마귀의 먹이가 아니다/내 먹이/느닷없는 고통과 불행/도둑같이 찾아오는 죽음의/그 쓰디쓴 소태 한 조각은 어디 있느냐/까옥 까옥 까옥/까마귀는 이 도시에 살 수가 없다

— 「까마귀」 부분

시적 대상인 까마귀는 이제 없다고 단언하면서 시는 시작한다. 이미 대상 상실을 경험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시에서는 “까옥 까옥 까옥”이라는 의성어와 “불길한 검은 새”를 통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굳이 ‘까마귀’의 상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에서는 몰락과 상실을 드러내는 기표들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대상 상실을 경험한 연유가 시에서는 등장한다. 바로 문명을 탐닉하는 인간들의 행태들이다. 사고가 생겨도 금방 잊는 사람들, 전쟁을 “안방에서 즐기는 전자오락 게임”으로 여기는 현대인들이다. 또한 “청소년용 값싼 본드와 부탄”과 “히로뽕”은 사람들이 중독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실의 경험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조차 인간들 때문에 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시인은 까마귀, 어둠, 불길, 검은 새, 고통, 미골, 사고, 전쟁, 고통, 불행, 도둑, 죽음, 소태 등의 이미지와 관념어를 사용하여 대상 상실과 자아 상실의 세계관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어제 분명히 죽었는데도/오늘은 또 거뜬히 살아나서/조간을 펼쳐든 스트랄드브라고 씨의 아침 식탁/그것은 위대한 생명공학의 승리/인공합성의 디엔에이 주사한 대가/시민들의 영생불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중략)… 젊어도 늙고/늙어도 늙고/태어날 때부터 이미 폭삭 늙어서/온통 노욕과 고집불통만 칙닝쿨처럼 칭칭/무성하게 뻗어난 도시/실연한 백발의 노처녀가 드디어 목을 맨다/그러나 결코 죽을 수는 없는/차가운 디엔에이의 위력/스스로 개발한 첨단 생명공학이/죽음에의 길마저 차단해버린 문명의 막바지에서/시민들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다/아 죽고 싶다

— 「죽지 않는 도시」 부분

내 가슴은 캄캄한 동굴이다/끝 닿지 않는 그 밑바닥에/섬뜩하게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또는 숨 막히게 더운 바람이/그것은 나의 고통/고통처럼 아직은 살아 있는/생명의 몸부림/말이 되기 전의 안타까운 손짓발짓이다//그리고 또한 그것은/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벗어나는/몸이 부르르 떨리는 전율/소멸을 꿈꾸는 망각의 희망이다//안식과 광란/서로 부딪치는 삶과 죽음의 욕망이/모

순된 그대로 뒤엎겨 공존하는 동굴/어두운 그 밑바닥에서//나는 무섭게 울부짖고 싶다/그리고 침묵의 해저로/가만히 가라앉고 싶다

— 「동굴」 전문

멜랑콜리는 시적 자아가 겪는 '대상 상실' 과 '자아 상실' 을 통해 '자애심의 추락' 을 경험하는 파토스적 경험이다. 「죽지 않는 도시」의 시민들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고통스러운 일상을 다시 살아야만 한다. 시인이 바라보는 도시는 아비규환의 세계와도 같다. 「인공합성의 디엔에이 주사」를 통해 삶을 연명하는 일상과 “태어날 때부터 이미 폭삭 늙어” 버린 주체들이 가득한 공간이 도시이다. 도시는 “노욕과 고집불통만” 칭칭 감기고 “노 처녀가 드디어 목을 매” 는 처절한 공간이다. 죽음까지도 “위대한 생명공학” 이 막아버리는 곳이다. 대상 상실과 자아 상실을 통해 일어나는 자애심의 추락이 위의 시에서도 드러난다. “시민들의 소망” 은 “죽고 싶다” 는 것인데, 죽음의 소망밖에 없다는 감정적 빈곤과 공허는 자애심의 추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동굴」에서는 자아 상실의 상황을 '동굴'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시의 화자는 자아 상실을 경험한 상태이다. 자아의 내면 이미지는 “캄캄한 동굴”이며 “섬뜩하게 차가운 바람이” 분다. 그곳에서 “무섭게 울부짖고 싶다” 고 “침묵의 해저로/가만히 가라앉고 싶다” 고 처절한 상황을 토로한다. 자아는 이미 자아 상실을 넘어서서 자애심의 추락이 일어났다. 시적 자아는 공허와 허무와 절망 속에 있는 자이다. 이러한 자애심의 추락은 멜랑콜리의 특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다.

위의 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역설의 수사학적 방법론을 통해 멜랑콜리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동굴」에서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벗어나는” 감각을 표출하면서 “소멸을 꿈꾸는 망각의 희망”이라는 역설적 의미를 펼쳐놓는다. 시인은 소멸/희망, 삶/죽음의 상대적인 의미를 통해 자애심의 추락으로 종결되는 멜랑콜리의 세계관을 다른 의미로 확장시키려 한다. 이형기는 멜랑콜리를 통해 자아 극복을 이루고 이를 통해 변증법적 세계관을 직시하고자 한다.

IV. 자아극복과 영웅적 멜랑콜리

이형기의 후기시는 자아 상실과 자애심의 추락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공간과 이미지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이형기의 멜랑콜리가 상실과 추락의 의미를 넘어서서 또 다른 세계의 지점을 찾기 위한 고투가 시의 곳곳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멜랑콜리는 상실과 추락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멜랑콜리를 통해 세계관의 또다른 창조를

피한다. 멜랑콜리를 치료해야 할 감정이나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정서의 표출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또다른 세계로 승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발테 벤야민이 제시한 “일상적이고 해로운 멜랑콜리”가 아니라 “숭고한 멜랑콜리, 영웅적인 멜랑콜리” (벤야민, 2018: 226~227)가 긍정적인 멜랑콜리의 특성이다. 이형기의 멜랑콜리의 또다른 특성은 벤야민의 ‘영웅적 멜랑콜리’라는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형기는 후기시에 이르러 뇌졸중을 앓고 신병에 걸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었다. 마지막 시집인 『절벽』은 병석에서 뱉어낸 언어의 결과물이다. 이형기의 병후체험은 멜랑콜리의 발생과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¹¹⁾ 그러므로 이형기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허무의식과 상실의 체험과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은 자아극복의 영웅적 멜랑콜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쫓기고 쫓겨서/더 이상은 갈 데 없는/그 숲속에/시체 하나 버려져 있다/보니 그것은 나 자신이다
//목발을 짚고 비틀비틀 걷다가/그 목발 내던지고 누워 있는 모습/편하게 보인다/참 다행이다/그
러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내 혼백//하긴 시체 따위/찾아봤자 물어줄 재주도 없지만/아무튼 이
것으로 한 매듭을 지어서/살았을 때 언제나 한 몸으로 지내던/육체와 혼백/이젠 작별이다//오억
년쯤 지나서 다시 만나자/아니 아니 오 년쯤 후에도/서로가 깨끗이 잊어버린 뒤에야/다시 만나
자

— 「한 매듭」 전문

그 늙은 당나귀는 죽었다//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이 있었지만/병명을 따져서 뭘 해/비쩍 바른
커단 몸집이/미세한 세포로 분해되어 허물어져 내리고/미침내 한 줌 흙으로/먼지로 돌아간다/그
것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엄숙한 약속/그 이행을/주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또 그것은
무엇인가가 모양을 갖추고/새로 태어나려는 전조/나무와 풀들이 수련대면서/비람과 구름을 손짓
하고 있다/이 모든 절차가/다만 침묵 속에서만 진행되는/봄별 단양한 오후 한때/당나귀는 덜컥
무릎을 꿇고 지상에서/숨바꼭질하듯 잠적했다

— 「숨바꼭질」 부분

시의 화자는 시인과 동일시를 이룬다. 숲속에 버려진 시체 하나는 “나 자신”이라고 표현한다. 이형기는 병을 오래도록 앓으며 죽음에 대한 인식이 시에 자주 등장하였다. 위 시에서도 화자는 비틀비틀 걷고 목발을 내던지는 병자의 모습이다. 시인은 이제 ‘혼백’까지 보이는 지경이

11) 정끝별은 멜랑콜리는 시인이 겪은 삶, 시대, 문화적 환경과의 연관 속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멜랑콜리의 시적 징후는 시인의 자전적 삶을 투영하는 특징을 지닐 뿐 아니라 사회적 삶 속에서 개인이 흔히 겪게 되는 상실과 고독을 표상한다. 때문에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가족 환경, 그가 놓인 시대문화적 환경 등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끝별, 2012: 7)

이른다. 시인은 “육체와 혼백” 이 작별하는 죽음의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과 만남의 기회로 삼는다. 죽음은 “오억 년쯤 지나서 다시 만나” 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즉 ‘시체—작별—다시 만남’ 의 과정을 서사적으로 표출한다. 그것이 시인이 사유한 ‘한 매듭’ 이다. 시인이 사유한 매듭은 이렇듯 단순한 결말을 이루지만, 이러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처절한 멜랑콜리의 고통을 수반했다.

「숨비꼭질」에 등장하는 당나귀는 시인의 피소나이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당나귀는 “한 줌 흙으로 돌아” 갔다고 담담히 전한다. 시인에게 죽음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엄숙한 약속” 이다. 처절하고 비천한 멜랑콜리의 감정이 담담한 어조로 변화되었으며, 모든 것을 극복하려는 영웅적 멜랑콜리를 보여준다. 시인이 신은 아니기에 애써 죽음에 담담해하지만, 내면에 멜랑콜리는 여전히 숨어 있다. 시인은 “그것은 무엇인가가 모양을 갖추고/새로 태어나려는 전조” 라고 전한다. 시인은 계속해서 죽음을 허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극복의 의지를 표출한다.

나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간다/과거에서 미래로가 아니라/미래에서 과거로//그것은 탄생이 아니라/
죽음에서 시작되는 내 인생/그것과 같다//그러므로 나는/미래의 미래 그 저쪽에 있는 추억/과거의
과거 그 저쪽에 있는 희망/그처럼 정상이다//이렇게면 저 능금을 보아라/한때의 식욕이 따먹고
버린/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씨 하나에서/새로이 움터오는 과거의 시작을
— 「거꾸로 가는 시계」 부분

시인이 선택한 시계는 “거꾸로 가는 시계” 이다. 시인은 죽음에서 또 다른 시작을 엿본다. 멜랑콜리의 감정은 니체의 영겁회귀나 보들레르의 영웅적 태도와 유사한 감정적 특성을 보인다. 현재의 절망을 통해 새로움을 엿보거나 쟁취한다. 또한 죽음에서 생성을 발견하며 단절된 삶에서 창조를 이루어낸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시계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걸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사물이다. 시인은 “과거에서 미래로가 아니라/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시계를 발견한다. 거꾸로 가는 시계를 보는 인식은 “죽음에서 시작되는 내 인생” 을 깨닫는 역설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용인이다. 상실의 멜랑콜리는 죽음으로부터 새로움을 발견하는 영웅적 멜랑콜리를 통해 변증법적 인식으로 나아간다. 시인은 죽음을 통해 “새로이 움터오는 과거의 시작” 을 감각하고 멜랑콜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V. 결 론

본고에서는 이형기의 시에 나타난 멜랑콜리의 특성을 후기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멜랑콜리는

정신병리의 결과가 아니라 자아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방법론의 한 양상이다. 멜랑콜리는 시적 자아가 대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태도, 현실 인식, 자아 성찰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세계관의 특성이다. 멜랑콜리는 긍정적인 자아의 정신적 활동이며 “단순히 병리적 감정이 아니라 세계의 폐허에 정직하게 반응한 결과이며, 이 세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인식의 출발점” (박상수, 2017: 112)으로 평가받고 있다.

멜랑콜리는 이형기 시의 분석들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이형기가 멜랑콜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후기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형기의 후기시를 문명체험과 상실의 멜랑콜리, 자아극복과 영웅적 멜랑콜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형기는 문명체험을 통한 대상 상실과 자아 상실을 경험한다. 폐허와 패배의 공간에 대한 상실, 세계와 불화를 겪는 자아의 상실, 상실로부터 발생하는 자애심의 추락 등의 양상이 시에 멜랑콜리의 특성으로 드러난다. 이형기는 상실의 멜랑콜리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멜랑콜리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웅적 멜랑콜리의 특성을 보여준다. 영웅적 멜랑콜리는 세계를 불화와 부정의 시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의 세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다. 이형기는 상실 의식에서만 그치지 않고 재생과 만남, 부활, 극복의 태도를 통해 새로운 멜랑콜리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이형기의 시에 드러나는 세계관의 특성은 허무주의와 문명비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멜랑콜리의 관점으로 이형기 시를 분석하는 것은 허무주의의 세계관을 넘어서서 또 다른 시각으로 이형기를 바라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이형기 시세계의 분석들이 마련되는 단초로 삼기로 한다.

참고문헌

○ 기본자료

이형기(2018). **이형기 시전집**. 한국문연.

○ 논문 및 단행본

김홍중(2006).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한국사회학**, 40, 1-31.

류 신(2012). 멜랑콜리 시학. **한국문학과 예술**, 9, 81-115.

- 박상수(2017). 애도와 멜랑콜리 연구. **상허학보**, 49, 107-147.
- 오형엽(2010). 멜랑콜리의 문학비평적 가능성. **비평문학**, 38, 374-401.
- 오형엽(2021). **알레고리와 숭고**. 문학과지성사.
- 정끝별(2012). 21세기 현대시와 멜랑콜리의 시학. **한국문예창작**, 24, 5-37.
- 최문규(2005). 근대성과 심미적 현상으로서의 멜랑콜리. **독일현대문학**, 24, 200-228.

○ 번역서

- Benjamin, W. (2009). **독일 비애극의 원천**, 김유동·최성만 옮김. 한길사.
- Freud, S. (1997). **무의식에 관하여**, 윤희기 옮김. 열린책들.
- Kristeva, J. (2004). **검은 태양**, 김인환 옮김. 동문선.

[토론문]

「이형기 시에 나타난 멜랑콜리」에 대한 토론

김명인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 강사)

발표문을 통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멜랑콜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터라, 읽는 동안 그
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도 살펴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발표문을
읽은 후 느낀 개인적인 소회를 짧게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던 직장에서 이형기 시인의 전집을 작업했습니다. 그 준비과정부터 출간에 이르기까
지의 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때문에, 발표문을 읽으며 당시 기억들이 자주 소환되었습니다. 전집
을 만들던 최근의 기억부터, 이형기 시인의 장례식 때 운구에 참여했던 기억, 댁에 찾아가 유품
을 보면서 그 꼼꼼함에 놀랐던 기억 등등 예전 것까지 말이죠. 돌아켜보니 단 한 번도 뵈
적은
없으나 저 역시 이형기 시인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엮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
다. 훌륭한 시인은, 그 사후에도 한 개인을 자신의 삶의 자장으로 자꾸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본 논문은 이형기 시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보여준 일반적 해석에서 벗어나 멜랑콜리를
통한 새로운 해석으로 그 지평을 넓히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멜랑콜리를 문학의 자장 안에 끌
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형기 시인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멜랑콜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2장에서 멜랑콜리라는 감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현실인식과 자아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주요 이론적 틀인 벤야민의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하여 이형기 시인의 작품 세계를 논하는 데 본 논문은 후기시만을 다루고 있습

니다. 후기시에서 나타난 멜랑콜리적 성격은 분명 모더니즘과 불화의 세계를 담은 문명비판의 세계를 보여준 중기시와의 상호상관 관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작업들과의 어떤 연관관계 속에서 멜랑콜리적 성격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서술이 있어야 더 충분한 설득력을 지닐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명 체험과 그로인한 상실의 체험은 이형기 시인과 동시대를 살아온 많은 시인들이 보여준 모습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변용하여 적용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변별점을 규명하는 것이 이 시대를 통과한 시인들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와 전쟁, 독재 등 비극적인 근대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각자가 성취한 나름의 변별점이 시대와의 고투의 밀도라 여기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시인들에 비하여, 상실의 멜랑콜리를 거쳐, 영웅적 멜랑콜리에 다다른 이형기 시인의 시적 고투가 가지고 있는 변별점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는 <4장 자아극복과 영웅적 멜랑콜리>를 읽으면서 조금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4장에서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병석에서 집필한 『절벽』입니다. 멜랑콜리 자체가 개인의 삶으로부터 투영되기 때문에, 집필 당시 이형기 시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되어 논의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하지만 멜랑콜리라는 감정은 적극적인 현실인식과 자아성찰의 전제 속에서 발생하는 바, 4장의 서술이 시인 개인의 병력에 의지하면서, 그것의 극복으로서 영웅적 멜랑콜리의 고투가 개인의 차원에서 멈춘 느낌입니다. 이를 현실인식과의 연관 속에서 보완하면, 영웅적 멜랑콜리의 성격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2부 워크숍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WORKSHOP)

진행 김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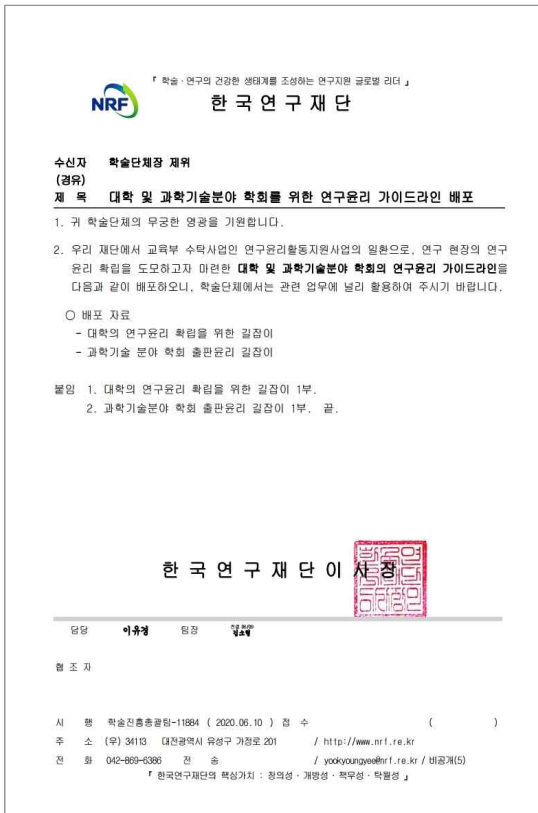
한국융합인문학회 연구윤리위원장 / 강릉원주대학교

한용인 한사질 고대한용인 2022년 연합학술대회(2022.06.1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1)



한용인 한사질 고대한용연 2022년 연합학술대회(2022.06.1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01	CHAPTER	머리말	
		1. 이 책의 목적	06
		2. 이 책의 구성	07
02	CHAPTER	연구윤리 지침의 목적과 정의	
		1. 지침의 목적 (제1조)	10
		2. 지침의 정의 (제2조)	11
		3. 적용 대상과 방법 (제3조)	16
		4. 지침 적용의 범위 (제4조)	18
03	CHAPTER	주체별 역할과 책임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22
		2. 대학의 역할과 책임 (제6조)	24
		3. 자체 규정의 확립 (제9조)	29
04	CHAPTER	연구부정행위 정의와 범위	
		1.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32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12조)	33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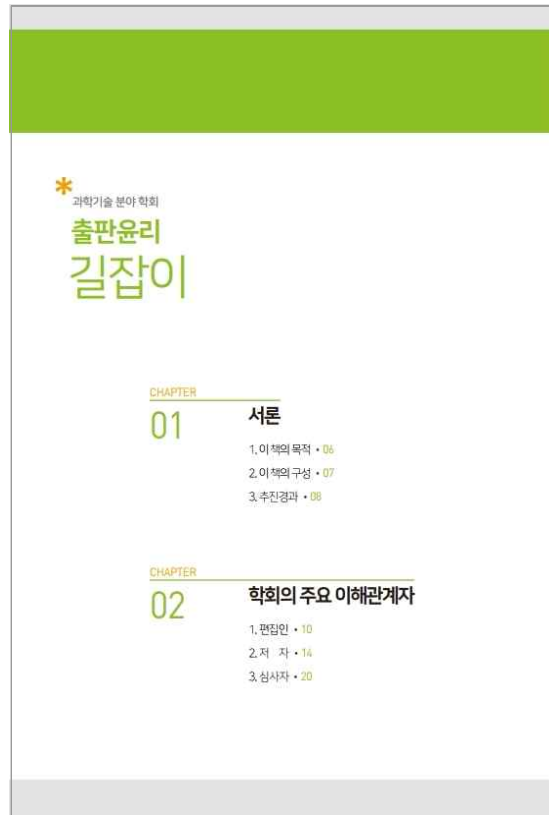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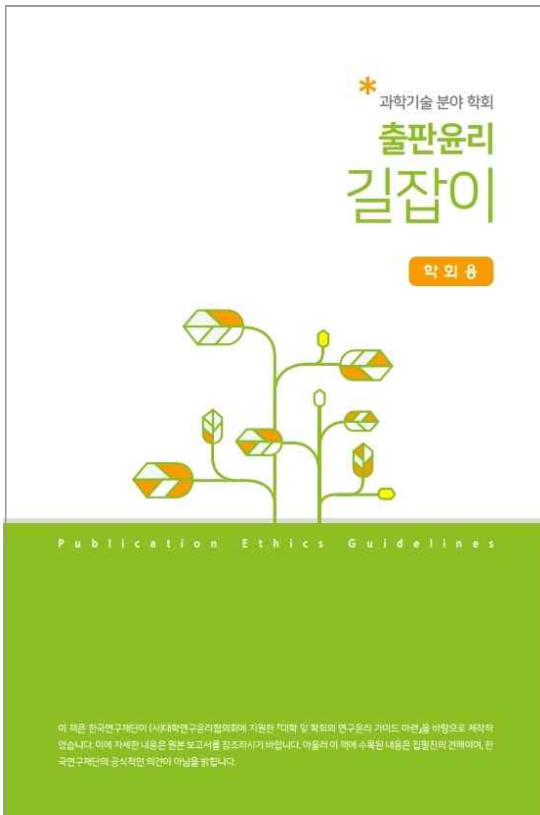
05	CHAPTER	연구부정행위 판단과 검증	
		1.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제14조, 제15조)	46
		2. 검증주제와 검증기간 (제16조, 제27조)	51
		3.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57
		4. 검증절차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63
06	CHAPTER	연구부정행위 후속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80
		2. 조사결과와 보고 (제29조)	81
		3.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84
07	CHAPTER	연구윤리 지침의 영속성	
		1. 검증 시효 지침 적용의 시기 구분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90
08	CHAPTER	참고문헌	95
		부록	96

한용인 한사질 고대한용연 2022년 연합학술대회(2022.06.1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3)



한용인 한사질 고대한용연 2022년 연합학술대회(2022.06.1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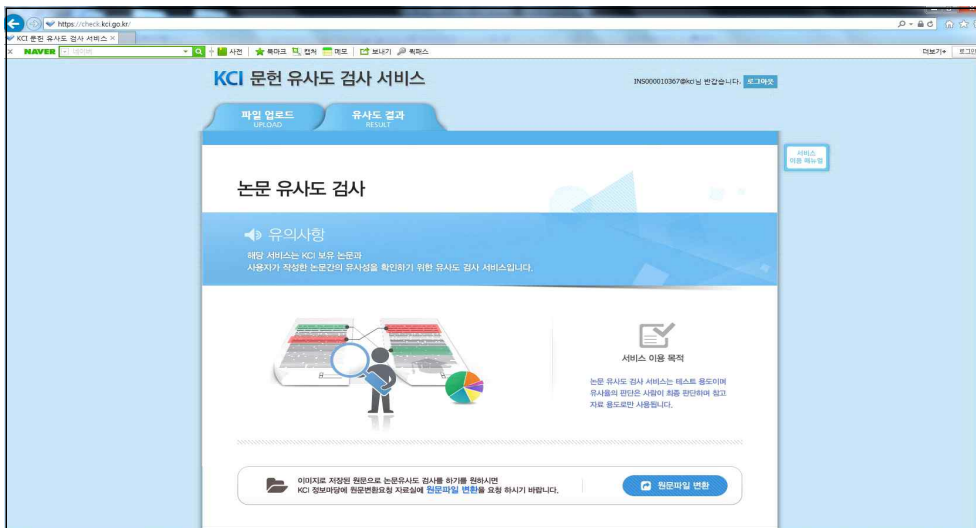
CONTENTS	
CHAPTER	
03	윤리적 학술출판을 위한 권고사항
	1. 동료심사 • 26
	2. 이해상충 • 30
	3. 논문철회 • 32
	4. 저작권 보호 • 36
	5. 우리표명 • 36
	6. 독자통신 • 36
CHAPTER	
04	학회의 연구윤리 검증 관련 권고사항
	1.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및 예방 • 40
	2. 연구부정행위의 판단과 검증 • 43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후 제재 • 46
	4. 생명윤리 • 48
	5. 연구기관과 학회 간 협력 • 50
CHAPTER	
05	부록
	○학회의 출판 및 연구 윤리 규정(예시 규정) • 54

한용인 한사질 고대한용연 2022년 연합학술대회(2022.06.1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한용인 한사질 고대한용연 2022년 연합학술대회(2022.06.1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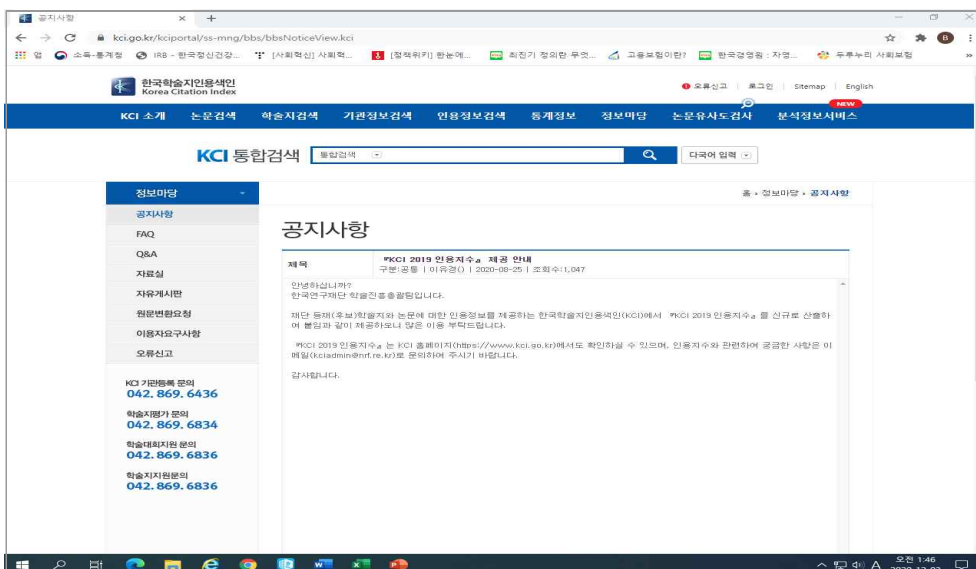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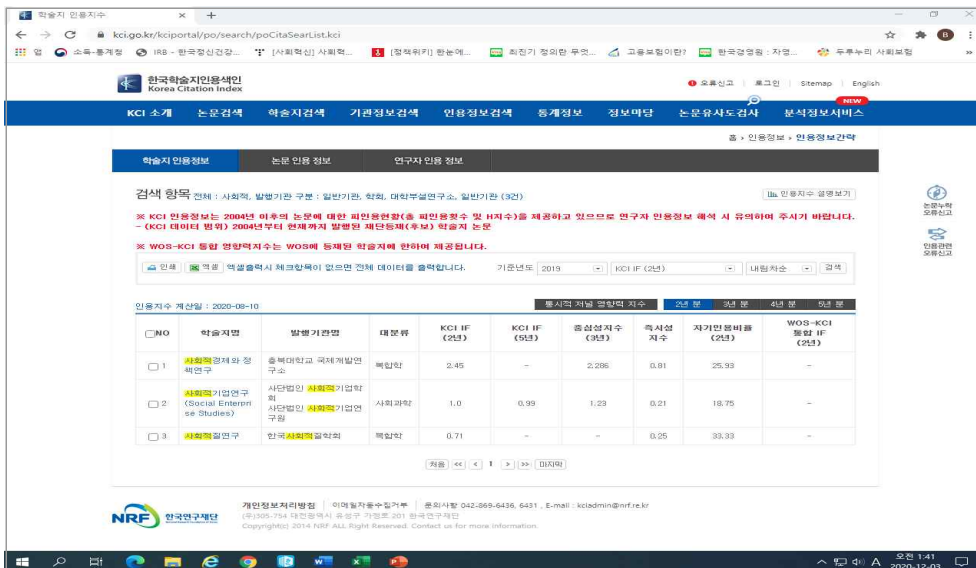


한용인 한사질 고대한용연 2022년 연합학술대회(2022.06.1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1)



한용인 한사질 고대한용연 2022년 연합학술대회(2022.06.1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2)

The screenshot shows the KCI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KCI 소개', '논문검색', '학술서평', '기관정보검색', '인용정보검색', '통계정보', '영보마당', '논문원서도입서', and '분석정보서비스'. The main search bar contains 'KCI 통합검색' and a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filters for '연도' (Year) and '입력' (Input).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인용보고서' (Citation Report) for a specific journal, showing a pie chart for '지자체 논문 수' (Local Government Paper Count) and a bar chart for '연도별 논문 수' (Paper Count by Year). Key metrics are displayed: H-index (2), 총 인용 횟수 (15), 평균 인용 횟수 (0.4), and 자기 인용 제외 인용 횟수 (9). A list of articles is shown below, including titles like '고령화시대 농업방제 효율성 증대를 위한 드론의 활용: 드론과 방제기의 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and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KCI 인용지수 설명

01.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특정기간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 횟수로 동일 분야 저널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

$$\text{영향력 지수 (IF)} = \frac{\text{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text{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ex) Journal "A"의 IF구하기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들이 2017년에 출판된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인용된 수 = 100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인용된 수 = 110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 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수 = 90 2016년 출판된 논문 수 = 95
계산	$\frac{100+110}{90+95} = \frac{210}{185} = 1.135$

02. KCI +WoS 통합 영향력 지수(KCI+WoS Impact Factor)

특정기간동안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국내 KCI와 국외 WoS(Web of Science) 논문에서 인용된 평균 횟수로서, 국내외적 인용도를 통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 (MOS **동재학술지에 한하여 제공**)

$$\text{KCI+WoS 영향력 지수 (IF)} = \frac{(\text{학술지의 논문이 KCI에서 인용된 총 횟수} + \text{WoS에서 인용된 총 횟수}) - (\text{KCI와 WoS 에서 중복하여 인용된 횟수})}{\text{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ex) Journal "A"의 KCI+WoS IF구하기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들이 2017년에 출판된 KCI 와 WoS 논문들에서 인용된 횟수	2015년,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KCI 에서 인용된 수 = 90 2015년, 2016년 출판된 논문 중 2017년에 WoS 에서 인용된 수 = 30 KCI 논문이면서 동시에 WoS 논문에 중복 인용된 수 = 15
2015, 2016년에 출판된 "A"의 논문 수	2015년 출판된 논문 수 = 90 2016년 출판된 논문 수 = 95
계산	$\frac{90+30-15}{90+95} = \frac{105}{185} = 0.567$

한용인 한사질 고대한용연 2022년 연합학술대회(2022.06.1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4.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실태점검 사례집 소개 (1)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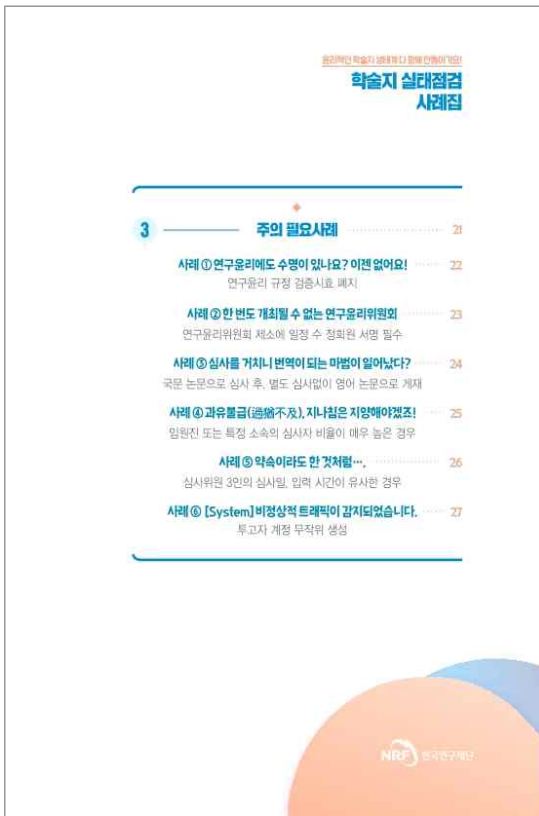
1	학술지 실태점검이란?	5
2	부정(부실) 사례	11
	사례 ① 과거는 제게 남아있지 않아요. 실태점검 자료 미제출 및 무실 제출	12
	사례 ② 논문도 재사용이 되나요? 자신 또는 다른 학술지에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을 자신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14
	사례 ③ 이 논문은 초면입니다만, 실제 투고·심사되지 않은 논문을 게재불가논문으로 사용	15
	사례 ④ 투고대장의 변신은 유죄! 학술지 평가 및 실태점검 시 제출한 논문투고대장 불일치	16
	사례 ⑤ 관심은 달아나고, 논문의 제목과 초록 불일치, 논문의 내용과 심사내용 불일치	17
	사례 ⑥ 발자국이 왜 남지 않을까? 논문의 심사위원회 또는 심사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8
	사례 ⑦ 1+1=3? 심사서 항목별 합계와 최종 합계 경수 불일치(조제)	19
	사례 ⑧ 플레이어와 심판이 동일 인물이라고? 투고자가 심사자인 경우	20

한용인 한사질 고대한용연 2022년 연합학술대회(2022.06.1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4.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실태점검 사례집 소개 (2)



한용인 한사질 고대한용연 2022년 연합학술대회(2022.06.1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돌봄과 교육

제2부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5.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

